

# 1950년 전후 금지곡의 사회사적 연구

문 옥 배

(전 공주문화재단 대표이사)

## 1. 머리말

광복 후 정부 수립인 이전 해방공간(1945.08.-1948.07.)의 사회적 과제는 일제 잔재 청산이었다. 음악계의 일제 잔재 청산도 사회적 흐름에 따라 왜색가요 금지정책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되었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 이후 사회적 과제는 정치적 이슈에 의해 변화되었다. 일제 잔재 청산은 지속되면서도 반공주의에 의한 좌익 척결로 전환된 것이다. 음악계의 이슈도 왜색에서 반공으로 이동하였다. 왜색가요에 대한 금지는 지속되면서도 좌익계 음악가(작가), 월북음악가에 대한 제재가 정부차원에서 시행되었다. 좌익계 작가에 대한 통제정책은 전향의 회유와 작품 및 창작활동의 금지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곧 좌익계열 노래에 대한 검열과 금지곡이 탄생한 것이다.

한편 1950년 전후에는 노래 관련 통제 법령인 ‘음반에 관한 법률’(법률 제 1944호, 1967.03.30. 제정), ‘공연법’(법률 제902호, 1961.12.30. 제정), ‘방송법’(법률 제1535호, 1963.12.16. 제정) 등의 토대가 되는 법령과 제도가 제정된 시기이다. 즉 음반관련 통제법령인 일제에 제정된 ‘축음기레코드취체규칙’(1933)이 효력을 발휘하면서<sup>1)</sup> ‘레코드제작 취체조치’(문교부, 1949.07.) ‘국산레코드 제작 및 외국 수입레코드에 대한 레코드검열기준’(문교부령, 1955.

---

1) 미군정은 군정법령 제21호 ‘이전 법령 등의 효력에 관한 건’(1945.11.02. 제정)에서 광복된 한국에 일제강점기 법령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발표하여 ‘축음기레코드취체규칙’은 1961년 12월 30일 ‘축음기(레코드)취체규칙 폐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905호, 1961.12.30.)이 발표될 때까지 법적 효력이 유지되었다.

10.), ‘공연물 허가규준’(문교고시 제24호, 1951.07.21.), ‘방송의 일반적 기준에 관한 내규’(공보실, 1958.01.25.) 등이 제정되어 음반, 공연, 방송음악 등의 검열이 시행되었다.

현재까지 발굴된 자료에 의하면, 미군정기와 제1공화국(1948.08.-1960.07.) 시기의 금지곡은 일괄적으로 금지한 일본가요(왜색가요)를 제외하면 월북작가의 노래와 시국관련 사유의 노래였다. 광복 이후 정부에 의한 최초의 금지곡도 우리에게 대중가요(음반) 검열기구로 익히 알려진 ‘한국문화예술윤리위원회’(1961.01.27. 창립)와 ‘한국방송윤리위원회’(1962.06.14. 창립)가 아닌 이 시기에 탄생하였다.

본 글은 정부에 의해 노래가 통제되고, 금지곡이 발표되기 시작한 1950년 전후 금지곡에 대한 사회사적 연구이다. 1950년 전후 금지곡이 생겨난 사회사적 배경은 무엇이며, 그 배경에 의해 어떤 음악가와 작가의 노래가 금지 조치되었는지 살펴본 것이다. 한국 금지곡 연구에서 일정 정도 성과 있는 연구가 발표된 연구대상은 일제강점기와 광복 후 1960년대 이후의 ‘한국문화예술윤리위원회’, ‘한국공연윤리위원회’, ‘한국방송윤리위원회’ 시기의 금지곡(노래 및 음반 검열)에 대한 연구이다.<sup>2)</sup> 일제강점기와 1960년대 이후는 노래검열이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었던 시기이다. 이에 1950년대 전후의 금지곡 연구는 노래검열이 일제강점기에서 광복 후 1960년대에 체계화되는 사이기간에 노래금지사유와 대상 및 방식이 어떠한 전환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보는 것이 될 것이다. 본 연구 대상인 금지곡은 예술가곡, 동요, 대중가요 등 모든 유형의 노래를 포함한다.

## II. 노래검열의 배경, 반공주의와 시국

광복 후 남한 단독 정부 수립(1948.08.15.) 이전인 ‘해방공간’의 사회 지배이데올로기가 ‘반일주의’였다면,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의 사회 지배이데

2) ‘한국문화예술윤리위원회’, ‘한국공연윤리위원회’, ‘한국방송윤리위원회’의 금지곡에 대한 포괄적 선행연구로는 다음의 글이 있다. 문옥배, “해방 이후 정부의 음악통제 연구,” 『음악논단』 22 (2008), 25-64; 문옥배, 『한국공연예술통제사』 (서울: 예술, 2013); 권정구, “1975년 이후 한국 대중음악에 대한 제도적 규제의 변화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올로기는 남북문제 즉 ‘반공주의’였다. 반공주의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로 굳어져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다. 문화예술계에서의 반공주의와 관계된 쟁점은 월북작가의 문제였다.

광복이 되자 좌우익의 이념을 가진 문화예술단체가 결성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좌익계 예술단체로는 조선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1945.09.), 조선문학동맹(1945.12.), 조선프롤레타리아음악동맹(1945.09.), 조선음악가동맹(1945.12.) 등이었고, 우익계 예술단체로는 전조선문필가협회(1946.03.), 조선청년문학가협회(1946.04.), 대한연주가협회(1946.03.), 전국음악문화협회(1946.07.), 고려음악협회(1947.02.) 등이었다.

각각의 이념을 토대로 결성된 문화예술단체는 ‘해방공간’이라 불리는 미군정기에 좌우 계열로 나뉘어 갈등을 가졌지만, 일제 잔재 청산에는 한 목소리를 내었다. 예컨대 좌익계인 조선음악가동맹은 ‘선언’의 첫 번째가 “일본 제국주의 잔재음악의 소탕을 기함”이었고, 우익계 음악인 김성태(金聖泰, 1910-2012)는 우리 음악에서 꼭 풀어야 할 문제로 일본적인 것의 제거를 주장하였다.<sup>3)</sup>

미소공동위원회(美蘇共同委員會)를 통한 단일정부 수립노선이 폐기되고 1947년 8월부터 좌익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및 숙정작업이 시작되었다. 1946년 ‘9월 총파업’과 ‘10월 항쟁’ 과정에서 대중시위·파업·민중투쟁 등의 투쟁방법이 동원되었고, 이에 미군정은 1947년 9월 7일 박헌영 등 조선공산당 간부에 대한 체포령을 내려 조선공산당을 불법화하였다. 1947년 미군정 당국은 정당 및 사회단체의 기념대회를 불허하는 ‘행정명령 5호’를 발표하여 8·15행사를 금지한 데 이어, 8월 11일부터 ‘민주주의민족전선’(약칭 민전) 산하 각 정당·사회단체 인사에 대한 대대적 검거를 시작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되어 반공을 국시(國是)로 삼으면서 사회 지배이데올로기로 반공주의가 자리잡았다.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좌익에 대한 검열과 통제, 해체와 검거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시국의 변화는 문화예술계도 예외가 아니었다. 좌익계 문화예술인에 대한 활동금지와 작품검열이 본격화되었고, 이에 그들은 월북을 택하였다. 곧 남한에는 좌익계예술 척결과 함께 예술의 반공주의가 자리를 잡았다.

3) 박영근, “음악계 개관,” 『1947년판 예술연감』, 김용호 편 (서울: 예술신문사, 1947), 39; 김성태, “음악건설의 제언,” 『혁명』, 서울: 혁명동지사, 1946년 창간호, 25.

정부의 반공이데올로기 주입정책은 정부시책 선전을 목적으로 공보처 산하에 설치한 선전대책중앙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국민 대상의 강연회와 극본, 노래, 표어, 포스터 등의 현상공모를 통해 반공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고 전파하였다. 특히 1948년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을 계기로 제1공화국 정부는 '국가보안법' 제정과 '국민보도연맹'(國民保導聯盟) 등을 조직하는 등 좌익척결에 나섰다.

1949년 10월 '여순사건' 1주년을 맞아 언론 및 공연예술인들로 구성된 '지방계몽선전대'(연극대와 영화대로 구성)를 전국에 파견하여 공연을 통한 반공선전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는데, 공연 내용은 민족국가의식과 반공의식을 진작하는 연극, 악극, 시극강연, 국민가요음악회, 영화상영 등이었다.<sup>4)</sup> 당시 파견 연극대에 참여한 예술단체는 극예술협회, 태평양가극단, 민족예술무대, 서울소극단, 새별악극단, 백조가극단, 현대가극단, 문협(文協) 등이었다.

정부 수립 이후 반공주의가 자리 잡으면서 문화예술계의 비판적 사회참여는 사라졌고, 월남예술인예술대회(1952.06.25.), 자유예술인연합(1952.06.28. 결성),<sup>5)</sup> 한국반공예술인단(1959.03.19. 결성) 등 예술단체가 반공주의 홍보창구 역할을 하였다.

특히 한국반공예술인단은 4.19혁명 이전까지 예술의 반공주의를 표방하고 활동했던 대표적인 예술관변단체였다. 한국반공예술인단은 1959년 3월 9일 발기인대회를 가진 후 3월 19일 시공관에서 1천여 명이 참여한 창립총회를 거쳐 창단되었다. 창립총회에서는 '창립선언문' 발표와 반공시(反共詩) 낭독, 시가행진 등을 하였고, 단장에 임화수를 선출하였다.<sup>6)</sup> '발기취지문'에 의하면 한국반공예술인단의 창단 목적은 반공예술문화 보급과 활동을 통하여 공산주의를 타도하

4) "지방민심을 수습, 각도에 계몽선전대 파견," 『동아일보』, 1949년 10월 12일; "지방계몽선전대 23일 현재 향발," 『동아일보』, 1949년 10월 22일; "민족정신 양양하자, 계몽선전대 장학회(壯行會) 성왕," 『동아일보』, 1949년 10월 23일.

5) "월남예술인예술대회," 『경향신문』, 1952년 6월 21일; "자유예련(藝聯) 결성," 『경향신문』, 1952년 7월 2일.

6) "한국반공예술인단 발기취지문," 『경향신문』, 1959년 3월 10일; "반공예술인단 19일에 창립총회," 『경향신문』, 1959년 3월 14일; "한국반공예술인단 선언문," 『경향신문』, 1959년 3월 19일; "반공예술인대회," 『경향신문』, 1959년 3월 19일; "한국반공예술인단 간부를 선출," 『경향신문』, 1959년 3월 21일; "한국반공예술인단의 창립에 즈음하여," 『경향신문』, 1959년 3월 22일.

고, 반공예술전선을 형성하여 조국의 평화통일 완수였다. 곧 한국반공예술인단은 예술의 반공주의를 표방한 것이었다.

반공예술인단 ‘발기취지문’(1959.03.09.)<sup>7)</sup>

[...]

본단은 앞으로

1. 반공예술인 훈련 및 양성기관 설치
2. 반공예술제 개최
3. 반공예술 지방순회 계몽반
4. 반공예술상 제정
5. 모범단원의 표창 및 포상
6. 단원의 후생시책
7. 기타 필요사업

이상의 과업완수를 위하여 우리들은 심혈을 경주할 것을 거듭 성명하는 바이며 본단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반공예술활동으로서 국가민족의 영원한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투쟁한다.
2. 우리는 반공예술문화를 향상 보급하여 공산주의를 타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3. 우리는 반공예술전선을 형성하여 대한민국 주권하에 조국통일 완수를 위하여 투쟁한다.

단기4272년 3월 9일

한국반공예술인단 발기인

그러나 한국반공예술인단은 제1공화국 시기에 대표적인 정치폭력배로 연예계를 장악했던 임화수가 단장이었던 관계로, 당대에 활동했던 대다수의 연예예술인이 강압에 의해 참여하였고, ‘반공’이라는 미명하에 제1공화국의 권력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계 하수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sup>8)</sup>

7) “한국반공예술인단 발기취지문,” 『경향신문』, 1959년 3월 10일.

8) “4.19의 음지(7) 반공예술인단,” 『동아일보』, 1960년 11월 13일.

〈사진 1〉 자유예술인연합결성대회  
(1952.06.28.)



〈사진 2〉 반공예술인단 정기총회  
(원각사, 1960.03.02.)



제1공화국에서 예술의 반공주의는 예술검열기준에 반영되었는데, 1950년 이전의 음반검열법령인 ‘축음기레코드취체규칙’(제4조 축음기레코드가 치안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과 ‘레코드제작 취체조치’(4항 레코드가 치안을 해하는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검열기준을 ‘치안’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반공주의가 강화된 한국전쟁 이후 정부의 직제개편으로 예술검열 관장기관이 된 문교부는<sup>9)</sup> 1955년 10월 문교부령으로 공포한 ‘국산레코드 제작 및 외국 수입레코드에 대한 레코드 검열기준’에 반공주의를 검열기준으로 포함시켰다. 즉 “적성국가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것(4항)과 “작사자·작곡자·가수 등이 월북 또는 적성국으로 도피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 및 반국가적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의 작품(5항)”은 사전검열을 통하여 금지하도록 하였다. 음반의 사전검열기준에 사회주의국가의 작품(작곡가, 연주자, 악단), 월북 작가의 작품,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작품을 포함시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술검열을 담당했던 문교부 문화국예술과장이 1949년 3월 연극각본 검열시행의 발표 시 인터뷰에서 “남로당계열의 사상적 모략과 최근 아름

9) ‘문교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000호, 1955.2.)에 따라 문교부가 문화예술에 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제1조), 문교부 문화국 예술과가 문화예술관련 검열의 소관부서가(제8조) 되었다. “대통령령 제1000호, 문교부 직제,” 『관보』, 제1274호, 1955년 2월 17일.

답지 못한 미국 풍속에 저촉되어 한국 고유의 미풍을 무시하는 등 민족사상을 혼란케 하는 공연을 미연에 방지하며 아울러 연극의 저속화를 방지할 의도에서 실시케 된 것이다”<sup>10)</sup>라고 하여 반공을 예술검열의 제1명분으로 내세웠다.

### III. 반공주의와 좌익·월북작가의 노래검열

#### 1. 좌익계 해방가요의 금지

일제는 식민지 조선의 효과적인 지배를 위해 조선 국민을 충성스러운 일본 천황의 ‘신민’(臣民)으로 만드는 ‘황민화(皇民化)정책’을 펼쳤다. 음악을 통한 황민화 즉 조선 국민의 음악 정서를 일본화하기 위한 ‘황음화(皇音化)정책’은 다양한 ‘관제(官制)음악운동’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일제강점기 말기에 절정을 이루었다.

일제의 관제음악운동은 중일전쟁(1937) 이후 조선을 병참기지화(兵站基地化)하고 보급기지로서의 후방의 정신적 안정을 고취시키기 위해 전개되었고, 관제 단체인 조선문예회(1937),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1938), 조선총력조선연맹(1940), 조선음악협회(1941), 경성후생실내악단(1942), 대화악단(1944) 등을 통하여 추진되었다. 황음화운동은 ‘가요정화운동’(歌謠淨化運動, 1937) ⇨ ‘음악보국운동’(音樂報國運動, 1941) ⇨ ‘후생음악운동’(厚生音樂運動, 1942) ⇨ ‘국민개창운동’(國民皆唱運動, 1943) 순으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강화되어가는 형태로 전개되었고,<sup>11)</sup> 이를 통하여 조선 민족의 음악 정서는 왜색화되었다.

광복이 되자 음악계는 왜색화된 음악정서를 일소하고 새로운 ‘민족음악수립’을 과제로 설정하였고, 이는 창작계를 중심으로 민족음악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창작계는 일반 대중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노래의 일본색 일소를 주장하면서 왜색노래를 대신할 창작운동의 전개를 주장하였다.<sup>12)</sup>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등장한 노래가 ‘해방가요’(解放歌謠)였다.<sup>13)</sup> 해방가

10) “연극각본을 검열, 민족사상혼란방지?” 『동아신문』, 1949년 3월 11일.

11) 노동은, “일제하 음악사회의 성격,” 『낭만음악』 1/4 (1989), 4-91; 노동은, “일제하 음악인들의 친일논리와 단체,” 『음악과 민족』 25 (2003), 51-131.

12) 계정식, “먼저 일본색 일소,” 『조선일보』, 1946년 2월 18일; 김승식 편, “문화: 음악,” 『1947년판 조선연감』 (서울: 조선통신사, 1946), 302.

13) 해방가요는 음악학·문학·사회학·역사학·정치학 등의 학제간연구가 필요한 주제

요는 당시 음악계와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된 용어로,<sup>14)</sup> ‘해방’이라는 특별한 사회적 변동과 관계되어 창작된 노래, 해방을 대상으로 삼은 노래, 광복 이후 남한 단독 정부 수립 이전인 해방공간에만 창작되었던 노래를 의미하였다. 해방 가요에 속하는 노래들은 ‘애국가곡’, ‘건국적(建國的) 가요’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sup>15)</sup> (노래 장르를 일컫는 용어는 아니었다.)

그러나 해방가요는 해방공간에 작곡되고 해방을 대상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예술가곡·동요·대중가요 등은 제외되고, 이념적·운동적 성격을 지닌 노래로 한정되었다. (해방가요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할 수 있기에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해방가요는 가사내용에서 단순히 광복의 감격을 넘어 일제 음악잔재에 대한 일소와 극복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향은 ‘민족문화건설’이라는 문화예술계의 시대적 과제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었다.

해방가요를 주도한 것은 조선프로레타리아음악동맹·조선음악가동맹 등 좌익계 음악단체였다. 좌익계 음악단체는 작곡가 개인의 창작활동을 넘어 집단으로 해방가요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조선음악가동맹이 1946년 5월 4, 5일 양일간 배재중학교 강당에서 개최한 ‘해방가요발표회’가 그 경우였다. 이 발표회에서는 당시 조선음악가동맹 회원 작곡가인 김순남·이건우·안기영·정종길 등의 해방가요 30곡이 독창·중창·합창 등으로 연주되었다. 발표회에서는 프로그램과 해방가요 악보를 수록한 ‘해방가요악보집’을 제작하여 제공하기도 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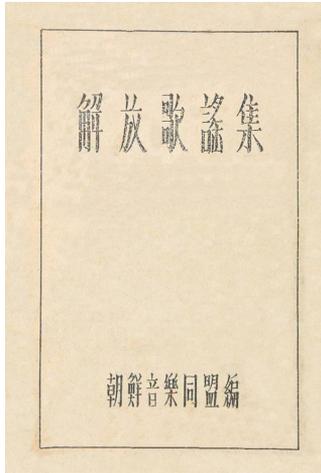
로 연구 자체가 드문 편이다. 해방가요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주혜진, “해방가요와 해방가요운동의 발생과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박정선, “해방가요의 이념과 형식,” 『어문학』 99 (2008), 199-230; 구수영, “해방가요의 분석과 역사적 의미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 14) “음악의 인민적 기초건설, 음동(音同)서 해방가요발표회,” 『현대일보』, 1946년 5월 3일; 박용구, “해방가요와 시,” 『음악과 현실』 (서울: 민교사, 1949), 57-61.
- 15) 중등음악교과서편찬위원회 편찬의 『입시중등음악교본』(서울: 국제음악문화사, 1946)의 목차와 서언에서 ‘애국가곡’, ‘건국적 가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조선국민음악연구회편집부 편찬의 『해방기념 애국가집』(서울: 조선국민음악연구회, 1946)의 머리말에서 ‘애국적 가곡’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표 1〉 조선음악가동맹 ‘해방가요발표회’ 프로그램(1942.05.4-5.)

작곡가	곡 명
김순남 (1917-1986)	건국행진곡(김태오 작사, 1945), 노동자의 노래, 농민의 노래, 농민조합가, 대가(隊歌), 독립군의 노래, 독립의 아침(이주홍 작사, 1945), 부녀가(婦女歌), 우리들의 노래(1946), 우리의 노래(이동규 작사, 1945), 의용군의 노래(조영출 작사, 1946), 인민의 노래, 자유의 노래(음악동맹 선사選詞, 1945), 추도가(문학가동맹 선사), 학병(學兵)의 죽엄, 해방의 노래(이주홍 작사, 1945)
이건우 (1919-1998)	민전(民戰)행진곡(임화 외 작사, 1946), 비들기, 여명의 노래(박용구 작사, 1945), 자유의 종소리(김철수 작사, 1946), 진달래 피는 나라(김기림 작사, 1947)
안기영 (1900-1980)	돌격대가, 무궁화(박세영 작사, 1945), 해방전사의 노래(임화 작사, 1945)
정종길 (1911-1995)	농부가, 민주청년동맹가(民靑歌, 임화 작사, 1946), 애국가(박세영 작사), 에라 동무들아, 염불(念佛), 청년의 노래

〈사진 3〉 『해방가요집』 표지  
(조선음악동맹편, 1946)<sup>16)</sup>



〈사진 4〉 안기영, 〈새나라 세우면서〉  
(『해방가요집』, 조선음악동맹편)



16) 1946년 5월 4, 5일 ‘조선음악가동맹’ 주최하에 배재중학교 강당에서 열린 ‘해방가요 발표회’ 악보집.

미군정청과 우익계 음악단체도 해방가요를 창작하여 보급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1946년 발표된 이흥렬 작곡, 이병기 작사의 《해방기념가》였다. 1946년 미군정청 문교부는 광복 1주년을 맞이하여 ‘해방기념가’ 작곡을 이흥렬에게 의뢰하여 제정하였고, 각 학교와 관공서에 광복1주년 기념식에서 공식적으로 부를 것을 시달하였다.<sup>17)</sup>

또한 좌익계 음악단체를 대표했던 ‘조선음악가동맹’의 이념에 반발적으로 창립되어<sup>18)</sup> 우익계 음악단체를 대표했던 ‘대한연주가협회’(1946년 3월 창립, 회장 계정식)는 《해방기념가》(이병기 작사, 이흥렬 작곡, 1946)를 협회차원에서 보급하였다.<sup>19)</sup> 《해방기념가》의 작곡자인 이흥렬이 대한연주가협회의 창립 당시 부회장이었다.<sup>20)</sup>

### 《해방기념가》

(이병기 작사, 이흥렬 작곡, 1946)

- |  |   |
|--|---|
| <p>1 잇으랴 잇을소냐 해방의 이날<br/>삼천만 가슴마다 넘치는 기쁨<br/>(후렴)<br/>누구나 한맘으로 힘을 다하세<br/>이보다 더 기쁜날 닥아 오도록</p> | <p>2 오로지 나라일에 몸을 바치고<br/>앞을서 가신님의 그 뜻을 이어<br/>(후렴)<br/>누구나 한맘으로 힘을 다하세<br/>이보다 더 기쁜날 닥아 오도록</p> |
|--|---|

초기 해방가요는 ‘광복의 기쁨’, ‘민족문화수립에 대한 열망’, ‘자주국가 수립의 희망’이라는 측면에서 좌우익의 이념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작곡가를 중심으로 볼 때 좌익계로는 김순남의 《해방의 노래》(이주홍 작사, 1945) · 《건국행진곡》(김태오 작사, 1945) · 《독립의 아침》(이주홍 작사, 1945) · 《우리의 노래》(이동규 작사, 1945), 이진우의 《여명의 노래》(박용구 작사, 1945), 안기영의 《해방전사의 노래》(임화 작사, 1945) 등이었으며, 우익계로는 김성태의 《독립행진곡》(박태원 작사, 1946), 나운영의 《건국의 노래》(김태오 작사,

17) “각 학교도 성대행사,” 『한성일보』, 1946년 7월 28일; “마음껏 불으자 해방기념가,” 『동광신문』, 1946년 7월 31일; “해방기념가,” 『자유신문』, 1946년 8월 9일.

18) 김순남, “악단회고기,” 『백제』, 서울: 백제사, 1947년 제2권 2호, 16; “문화10년 음악,” 『경향신문』, 1955년 8월 12일.

19) “해방기념가 제정, 대한연주가협회에서,” 『동아일보』, 1946년 7월 27일.

20) “민주적 음악을 수립, 대한연주가협회 결성,” 『동아일보』, 1946년 3월 13일.

1945), 이흥렬의 《해방기념가》(이병기 작사, 1946), 박태준의 《무궁화는 피고피고》(윤복진 작사, 1945) 등이었다.

### 《해방의 노래》

(이주홍 작사, 김순남 작곡, 1945)

- |   |  |
|---|--|
| 1 조선의 대중들아 들어보아라<br>우렁차게 들려오는 해방의 날을<br>시위자가 울리는 발굽소리와<br>미래를 고하는 아우성소리 | 2 노동자와 농민들은 힘을 다하여<br>놈들에게 빼앗겼던 토지와 공장<br>정의의 손으로 탈환하여라<br>제놈들의 힘이야 그 무엇이라 |
|---|--|

### 《독립행진곡》

(박태원 작사, 김성태 작곡, 1946)

- |  |  |   |
|--|--|---|
| 1 어둠과 괴로워라 밤이 길드니<br>삼천리 이 강산에 먼동이 텃네<br>동무야 자릴차고 이어나거라<br>산 넘고 바다 건너 태평양 넘어<br>아 아 자유의 자유의 종이 울린다 | 2 한숨아 너 가거라 현해탄건너<br>설움아 눈물아 너와도 하직<br>동무야 두손 들어 만세 부르자<br>아득한 시베리아 넓은 벌판에<br>아 아 해방의 해방의 깃발 날린다 | 3 유구한 오천년 조국의 역사<br>앞으로 억만년이 더욱 빛나리<br>동무야 발맞추어 힘써 나가자<br>우리의 앞길이 양양하고나<br>아 아 청춘의 청춘의 피가 끓는다 |
|--|--|---|

그러나 1946년 5월 ‘조선정판사(朝鮮精版社) 위조지폐사건’,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 ‘9월 총파업’, ‘10월 항쟁’ 등 남한 정세가 격화됨에 따라 좌익계 해방가요는 사회주의 계급해방을 노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고, 이후 우익계 해방가요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sup>21)</sup>

이 시기에 작곡된 좌익계 해방가요는 《인민항쟁가》(임화 작사, 김순남 작곡, 1946), 《남조선형제여 잊지 말아라》(임화 작사, 김순남 작곡, 1946), 《공위환영가》(문학가동맹 선사, 김순남 작곡, 1947),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가》(임화 작사, 김순남 작곡, 1947), 《인민유격대의 노래》(김순남 작곡, 1947), 《인민의 나라》(박아지 작사, 김순남 작곡), 《민주청년동맹가》(임화 작사, 정종길 작곡, 1946), 《민전행진곡》(임화외 작사, 이견우 작곡, 1946) 등이다. 특히 10월항쟁 전후로 발표된 두 곡, 《인민항쟁가》는 북한 국가(國歌)가 제정되기 전 가사 일부가 개사되어 북한의 국가 대용으로 불렸고, 《남조선형제여 잊지 말아

21) 박정선, “해방가요의 이념과 형식,” 『어문학』 99 (2008), 199-230.

라》도 대중에게 애창된 노래였다.

좌익음악계의 해방가요가 1946년 중반 이후 사회주의이념을 노래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에 반해, 우익음악계는 광복 초기 창작한 곡 외에 더 이상 해방가요를 생산하지 않았다. 곧 해방가요에 있어 좌우익을 가른 것은 가사 내용의 사회주의이념 문제였다. 당시 우익계 음악인은 예술의 순수성을 앞세워 예술의 정치성을 비판하고 있었다.<sup>22)</sup>

해방가요의 악곡양식은 작곡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김순남·이건우·안기영 등은 전통민속음악요소와 현대서양음악기법의 활용, 대중성 있는 쉬운 선율이 특징이었다. 해방공간에 대중적으로 애창된 대표적인 해방가요로는 김순남의 《해방의 노래》·《인민항쟁가》·《남조선 형제여 잊지 말아라》, 이건우의 《여명의 노래》, 김성태의 《독립행진곡》 등이었다.<sup>23)</sup>

해방가요가 창작되고 불린 시기는 남한 단독 정부 수립 이전인 해방공간이었다. 정부 수립 이후 좌익계에 대한 탄압과 검거 그리고 좌익계 음악인의 월북으로 좌익계 해방가요는 금지되었다. 즉 좌익계 해방가요의 금지는 가사의 이념과 작곡자의 좌익활동 및 월북과 관계있었다.

한편 광복의 감격과 자주국가의 수립과 희망을 노래하고 사회주의이념 문제를 다루지 않았던 우익계 해방가요는 금지되지 않았고, 정부 수립 이후 전개된 국민개창운동을 통하여 ‘국민가요’<sup>24)</sup>로 이어졌다. 곧 좌우익 해방가요의 ‘단절

22) 김성태, “음악건설의 제언,” 25-26. 김성태는 광복 후 1945년 8월 16일 결성된 첫 음악단체인 ‘조선음악건설본부’의 작곡부위원장(위원은 김순남과 이건우였다)을 지냈고, 정부 수립 이후 현제명과 함께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및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등을 지내며 음악계의 권력 중심에 섰던 음악가였기에, 그의 글은 우익음악계의 상징성을 갖는다.

23) 박용구, “해방가요와 시,” 『음악과 현실』 (서울: 민교사, 1949), 57; 김승식 편, 『1948년판 조선연감』 (서울: 조선통신사, 1947), 381.

24) 1949년 공보처는 국민개창운동을 위해 국민공모로 가사를 선정(애국의 노래, 민족의 노래, 국민의 노래)하고 이 가사를 작곡가에게 의뢰하여 국민가요(애국가요)를 제정하였다. 국민가요는 국민공모 가사에 곡을 붙은 《애국의 노래》(홍순영 작사, 박태현 작곡), 《민족의 노래》(장유점 작사, 윤용아 작곡), 《국민의 노래》(염준호 작사, 이흥렬 작곡)와 《우리날》(김생려 작사-작곡), 《자유의 종》(김상대 작사, 손봉 작곡), 《건국의 노래》(김태우 작사, 나운영 작곡) 등 6곡이었다. “국민가요 등 당선자 공보처서 어제 시상,” 『조선일보』, 1949년 7월 26일; “국민가요 등 당선자에 수상,” 『경향신문』, 1949년 7월 27일; “국민의 가요 공보처서 제정,” 『동아일보』, 1949년 12월 4일; “애국가요를 보급, 저속·애상한 유행가 일소,” 『자유신문』, 1949년 12월 2일;

과 지속'을 가른 것은 작곡가의 이념과 월북이었다.

〈표 2〉 주요 해방가요 목록(1945-1947)

작곡가	곡명	비고
김순남	건국행진곡(김태오 작사, 1945), 공위(共委)환영가(문학가동맹 선사, 1947), 남조선형제여 잊지 말아라(임화 작사, 1946), 노동자의 노래, 농민가(박아지 작사, 1945), 농민조합가, 대가(隊歌), 독립군의 노래, 독립동맹환영가(박세영 작사, 1946), 독립의 아침(이주홍 작사, 1945), 민청(民靑)행진곡(음악동맹 선사), 부녀가(婦女歌), 예맹의 노래(임화 작사, 1946), 우리들의 노래(1946), 우리의 노래(이동규 작사, 1945), 의용군의 노래(조영출 작사, 1946), 인민의 노래, 인민유격대의 노래(1947), 인민의 나라(박아지 작사), 인민항쟁가(임화 작사, 1946), 추도가(음악동맹 선사), 자유의 노래(음악동맹 선사, 1945), 전평가(全評歌, 임화 작사, 1946),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가(임화 작사, 1947), 조선여자청년동맹가(1945), 철도노동자의 노래(임화 작사), 청총가(靑總歌, 임화 작사), 친위대가(임화 작사), 학병(學兵)의 죽임, 해방의 노래(이주홍 작사, 1945)	작곡가월북 금지곡
이건우	민전(民戰)행진곡(임화 외 작사, 1946), 반전가(反戰歌, 이진우 작사, 1946), 비들기, 여명의 노래(박용구 작사, 1945), 자유의 종소리(김철수 작사, 1946), 진달래 피는 나라(김기림 작사, 1947)	작곡가월북 금지곡
안기영	돌격대가, 무궁화(박세영 작사, 1945), 새나라를 세우면서(조남령 작사, 1945), 해방전사의 노래(임화 작사, 1945), 건국행진곡(김태오 작사), 노동자의 노래(신한철 작사)	작곡가월북 금지곡
정종길	농부가, 민주청년동맹가(民靑歌, 임화 작사, 1946), 불러라 만세를, 애국가(박세영 작사), 에라 동무들아(1946), 청년의 노래	작곡가월북 금지곡
김성태	독립행진곡(박태원 작사, 1946), 아침해 고을시고(임학수 작사, 1945)	
나운영	건국의 노래(김태오 작사, 1945), 조선의 노래(이협 작사, 1945), 조국의 노래(김태오 작사, 1945)	
이흥렬	농군의 노래(여상현 작사, 1945), 축재(祝在)해외조선군개선거(임학수 작사, 1945), 해방기념가(이병기 작사, 1946)	
박태준	무궁화는 피고피고(윤복진 작사, 1945)	
금수현	새노래(이중희 작사, 1945), 8월15일(윤인구 작사, 1945)	

“이철원 공보처장, 저속한 유행가보다 애국가요를 부르라는 담화를 발표,” 『한성일보』, 1949년 12월 2일.

## 2. 좌익계 및 월북작가의 노래금지

정부 수립 이후 좌익계 문화예술인에 대한 활동통제가 본격화되는데, 1949년 4월 서울시 경찰국은 좌익계 문화운동단체의 연합회인 ‘조선문화단체총연맹’ 산하 각 문화예술단체(조선문학가동맹, 조선연극동맹, 조선영화동맹, 조선음악동맹, 조선미술가동맹, 조선조형예술동맹, 조선무용예술협회, 조선가극동맹, 국악원)에 가입된 예술인들이 탈퇴하지 않으면 무대출연을 금지시킬 것임을 발표하였다.<sup>25)</sup> 또한 좌익계 작가의 작품에 대한 발매금지조처도 취하였는데, 첫 제한 조처는 1949년 9월 15일 김인정교과서 및 국정교과서 등 8종의 교과서에서 일체의 좌익작가 관련 작품의 삭제 조처였다.<sup>26)</sup> 이미 출판된 교과서는 먹으로 그 부분을 지워 사용하게 하였다.

1949년 11월 5일 정부는 공식적으로 좌익계 작가 명단을 작성하여 제한 조치를 발표하였다. 즉 좌익계 작가를 세 등급으로 분류하여 1급은 이미 월북한 작가이며 2·3급은 남한에 남은 좌익계 작가로 2급 29명, 3급 22명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1급인 월북한 작가는 출간된 작품의 판매금지를 조치하였고, 2·3급 작가는 좌익계열자수기간 내 자수를 강요하고, 자수하지 않을 경우에 간행한 저서의 압수와 앞으로 간행·창작 등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 명부를 신문사와 잡지사 및 문화단체 등에 배부하여 창작 발표나 작품계재 등을 금지시키겠다고 압박하였다.<sup>27)</sup>

1949년 6월 5일 정부는 좌익계 인물 전반에 대한 관리 통제를 조직화하는데, 바로 ‘국민보도연맹’을 결성한 것이었다. 국민보도연맹의 목적은 좌익인사들을 별도 관리하여 사상전향을 통해 반공국민으로 계몽·지도하는 데 있었다. 이 조직은 정부의 주도로 만들어졌지만, 법률에 근거가 없어 임의단체였고 성격상 관변단체였다. 곧 국민보도연맹은 제1공화국 정부가 통치기반 강화를 위해 만든

25) “민전(民戰) 산하 예술인에 탈당없인 활동금지,” 『경향신문』, 1949년 4월 10일; “민전 산하 연예인 출연을 불허,” 『동아일보』, 1949년 4월 12일; “무대예술인 간담회,” 『조선일보』, 1949년 4월 17일.

26) “국가이념에 위반되는 저작물 등을 일체 발금(發禁),” 『조선일보』, 1949년 10월 1일; “안호상(安浩相) 문교부장관, 김인정교과서에서 좌익작가 작품 삭제 등 문교행정에 대하여 기자와 문답,” 『한성일보』, 1949년 10월 5일.

27) “문화인 자수강조, 미자수자 서적은 발금,” 『자유신문』, 1949년 11월 6일; “불온저서 판금(不穩著書販禁) 불인내(不日內) 압수착수,” 『동아일보』, 1949년 11월 7일.

좌익전향단체였다.

국민보도연맹은 ‘남로당원 자수선전주간’(1949.10.25.-11.30.)을 정하여 남로당원 및 좌익인사의 전향신고를 받았고, 전향자에게는 처벌 면제와 직업 알선 등의 신분보장을 약속하였다. 반면 자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등으로 가압을 독려했다. 문화예술인 중에는 시인 정지용(鄭芝谿, 1902-1950)이 최초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면서 자신이 월북했다는 소문에 대한 해명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다.<sup>28)</sup>

1950년 1월 27일에는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좌익 전향작가들의 집필금지를 해금하였고, 기고원고는 사전 심사할 것임을 발표하였다.<sup>29)</sup> 즉 출판을 위해서는 사전에 원고를 각 시도 경찰국장을 경유하여 치안국장에게 보내 심사를 거친 후 출판할 수 있었고, 신규 간행물은 치안국 사찰과 검열제로 2부씩 제출케 하였다. 전향작가들의 원고에 대한 사전검열이 폐지된 것은 4월 7일이 되어서였다.<sup>30)</sup> 이렇게 좌익계 예술가에 대한 작품활동이 제한되고 작품검열이 강화되자 그들은 월북을 선택한 것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남한에서 활동하던 좌익계 문화예술인들은 월북하였고, 비좌익계 예술인은 납북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1951년부터 월북예술인(납북예술인을 포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1951년 10월 1일 공보처는 월북작가에 대하여 세 등급으로 분류하여 ‘작품발매금지 및 문필활동금지조치’를 발표하였는데, A급은 한국전쟁 전 월북한 작가 38명, B급은 한국전쟁 이후 월북한 작가 24명, C급은 한국전쟁 중 납치·행방불명 등 기타 사유로 소식이 없는 작가 12명이었다. A·B급의 작가에 대해서는 이미 간행된 작품에 대해서 발매금지 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차후에도 문필활동(출판)을 금지시켰고, C급 작가에 대해서는 내용을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sup>31)</sup>

28) “시인 정지용씨도 가맹(加盟) 전향지변(轉向之辯) 심경의 변화,” 『동아일보』, 1949년 11월 5일.

29) “전향 문필가 기고를 해금, 이(李) 공보처장 담(談),” 『경향신문』, 1950년 2월 5일; “귀의(歸依) 문화인 집필금지 해제, 사전검열제를 이(李) 공보처장 언명,” 『조선일보』, 1950년 2월 5일.

30) “전향작가원고 앞으로 심사않는다. 이(李) 공보처장 담(談),” 『동아일보』, 1950년 4월 8일.

31) “월북작가 저서 발금,” 『자유신문』, 1951년 10월 5일; “서적 단속을 강화, 월북작가

## 금지조치된 월북작가(공보처, 1951.10.01.)

한국전쟁 전 월북작가(A급, 38명)

김남천(金南天)	김사량(金史良)	<b>김순남(金順南)</b>	김조규(金朝奎)
김태진(金兌鎭)	민병균(閔丙均)	<b>박세영(朴世永)</b>	<b>박아지(朴芽枝)</b>
<b>박영호(朴英鎭)</b>	<b>박찬모(朴贊模)</b>	<b>박팔양(朴八陽)</b>	서광제(徐光濟)
송 영(宋 影)	<b>신고송(申鼓頌)</b>	안함광(安含光)	안희남(安懷南)
오기영(吳基永)	<b>오장환(吳章煥)</b>	이 찬(李 燦)	이기영(李箕永)
<b>이면상(李冕相)</b>	이병규(李秉珪)	이북명(李北鳴)	이선희(李善熙)
이원조(李源朝)	이태준(李泰俊)	<b>임 화(林 和)</b>	임선규(林仙圭)
조벽암(趙碧岩)	지하련(池河連)	최명익(崔明翊)	한 효(韓 曉)
한설야(韓雪野)	함세덕(咸世德)	허 준(許 俊)	현 덕(玄 德)
홍기문(洪起文)	홍명희(洪命熹)		

한국전쟁 후 월북작가(B급, 24명)

강형구(姜亨求)	김동석(金東錫)	김만형(金晩爛)	김소엽(金沼葉)
김영석(金永錫)	김이식(金二植)	문철민(文哲民)	박계명(朴啓明)
박노갑(朴魯甲)	박문원(朴文遠)	박상진(朴尙進)	<b>박태원(朴泰遠)</b>
배 호(裵 皓)	설정식(薛貞植)	<b>안기영(安基永)</b>	<b>이건우(李建雨)</b>
이범준(李範俊)	<b>이병철(李秉哲)</b>	<b>이용악(李庸岳)</b>	임서하(任西河)
<b>정종길(鄭鍾吉)</b>	정종여(鄭鍾汝)	정현웅(鄭玄雄)	홍 구(洪 九)

납치·행방불명 등 내용검토작가(C급, 12명)

<b>김기림(金起林)</b>	김기창(金基昶)	김찬승(金燦承)	<b>김철수(金哲洙)</b>
김홍준(金弘俊)	박노아(朴露兒)	박래현(朴來賢)	정광현(鄭廣鉉)
정인택(鄭人澤)	<b>정지용(鄭芝鎔)</b>	채정근(蔡廷根)	최영수(崔永秀)

\* 짙은색 강조는 월북작가중 음악장르(작곡, 작사)와 관련 있는 인물이다.

작사가들은 대부분 시인이었기에 월북문학인의 작품이 금지되면서 노래도 금지되었다. 위 월북작가 중 음악관련자는 작사가(시인)로 김기림·김철수·박세

영·박아지·박영호·박팔양·박태원·박찬모·신고송·오장환·이병철·이용악·임화·정지용 등이고, 작곡가로 김순남·안기영·이건우·이면상·정종길 등이다.

문교부는 위에 제시된 A·B급의 월북작가 명단을 6년 후인 1957년 2월 26일에 다시금 발표하면서 한국전쟁 전후에 월북한 작가의 작품에 대하여 출판판매금지과 교과서 사용주의를 발표하였다.<sup>32)</sup> 이는 1951년 10월 금지된 월북작가 명단을 발표하였음에도 그들의 작품이 출판사의 부주의로 출판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었다.

1951년의 금지조치된 월북작가 명단에는 빠졌지만, 후에 월남북이 알려져 금지된 작가도 있었다. 1988년 10월 27일 문화공보부의 ‘월남북음악인 작품규제 해제조치’에 의해 해금된 월남북작사가(문학인)인 윤복진·박산운·이정구·김복원·김석송 등이 그들이다.

1952년 10월 29일에 이철원 공보처장은 월북한 문인과 작곡가의 작품은 어느 부문을 막론하고 가창을 금지하고, 이미 출판된 가요집이라도 일체 판매를 금지한다고 담화를 발표하였다.<sup>33)</sup> 이 담화를 발표하게 된 이유는 이미 월북작가의 작품이 발매 금지되었음에도 출판 및 공개가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표 3〉 월남북 문인의 작사 금지곡

작가	곡명
김기림(1908-2000)	진달래 피는 나라(이건우 작곡, 1947)
김복원(1911-1948)	철공소(김순남 작곡, 1944)
김석송(1901-1983)	그리운 강남(안기영 작곡, 1928)
김철수	자유의 종소리(이건우 작곡, 1947)
박산운(1921-1997)	산길(이건우 작곡, 1948), 추풍령(이건우 작곡, 1948)
박세영(1902-1989)	무궁화(안기영 작사, 1945), 애국가(정종길 작사), 독립동맹환영가(김순남 작사, 1946), 자장가(이건우 작곡, 1948)
박아지(1905-1959)	노들강(이건우 작곡, 1947), 농민가(김순남 작곡, 1945), 심화(心化, 이건우 작곡, 1947), 피(이건우 작곡, 1947)

32) “월북작가작품 등 교과서 사용안도록,” 『경향신문』, 1957년 3월 2일; “월북작가작품 출판판매금지 문교부서 지시,” 『동아일보』, 1957년 3월 3일.

33) “월북작곡가 가곡 등 금지, 이 공보처장 담(談),” 『경향신문』, 1952년 10월 30일.

박영호(1911-1952)	기타에 올음 신고(이재호 작곡, 1939)
박찬모	자장가(김순남 작곡, 1948)
박팔양(1905-1988)	감상의 가을(염석정 작곡, 1934), 까막잡기(홍난파 작곡, 1933), 바람(홍난파 작곡, 1933), 가을(홍난파 작곡, 1933), 할미꽃(윤극영 작곡, 1924)
박태원(1909-1986)	독립행진곡(김성태 작곡, 1945)
신고송(1907-?)	가을의 저녁(신고송 작곡), 고개(김순남 작곡, 1947), 고초장(강신명 작곡, 1938), 골목대장(홍난파 작곡, 1930), 낫속임(신고송 작곡), 둘다리(홍난파 작곡, 1930), 아침(김순남 작곡, 1947), 아침(박태준 작곡, 1932), 잠자는 방아(홍난파 작곡, 1933), 조각빛(홍난파 작곡, 1929), 진달래(강신명 작곡, 1938), 진달래(홍난파 작곡, 1927)
오장환(1918-1951)	상렬(김순남 작곡, 1944), 양(김순남 작곡, 1948)
윤복진(1907-1991)	고향하늘(박태준 작곡, 1929), 녹슨 가락지(홍난파 작곡, 1931), 무궁화는 피고피고(박태준 작곡, 1945), 하모니카(홍난파 작곡, 1929)
이병철(1921-1995)	민대(이건우 작곡, 1948)
이용악(1914-1971)	꽃가루속에(이건우 작곡, 1948)
이정구(1911-1976)	가을밤(홍난파 작곡, 1930), 꽃밭(홍난파 작곡, 1933), 해지는 저녁(홍난파 작곡, 1933)
임 화(1908-1953)	인민행진가(김순남 작곡, 1946), 철도노동자의 노래(김순남 작곡)
정지용(1902-1950)	고향(채동선 작곡, 1933), 다른 하늘(채동선 작곡, 1932), 바다(채동선 작곡, 1932), 또 하나 다른 태양(채동선 작곡, 1932), 산엔책시 들 녘사내(채동선 작곡, 1932), 소곡(小曲, 이건우 작곡, 1948), 압천(鴨川, 채동선 작곡, 1932), 풍랑몽(채동선 작곡, 1932), 향수(채동선 작곡, 1932)

1953년 12월 5일에는 내무부·국방부·법무부·검찰청·공보처 등의 5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하여 월북작가 작품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sup>34)</sup> 문화관계부서인 공보처 외에 4개 정보보안기관이 참여하여 합동회의를 주최한 것은 월북작가금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피력인 것이었다. 이는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체결(휴전협정, 1953.07.27.) 후 그에 따른 반공 이데올로기 강화 차원의 조치였다. 월북작가에 대한 작품의 금지조치는 행정, 사법, 입법 등 전방위에 걸쳐 시행되었다.

34) “사상전을 강화, 관계부처합의,” 『동아일보』, 1953년 12월 7일; “월북인 작품 등 단속, 내무 공보 등 5개 관계관 회합,” 『자유신문』, 1953년 12월 8일.

1952년 10월 29일 공보처장 담화시 발표한 월북음악인과 금지곡은 작사자로 조명암 52곡과 박영호 34곡, 작곡가로 이면상 10곡과 안기영 3곡 등이었다.<sup>35)</sup> 공보처가 발표한 이들 작가의 금지곡 목록을 보면 작품 상당수가 누락되었는데, 이는 당시 가요 및 음반에 대한 정리된 정보(작사자, 작곡자, 작곡년도)가 없어 수집가능한 곡만을 발표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국전쟁 후 월북예술가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자체가 금기시되었던 사회적 상황에서 비록 금지곡 목록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월북작가들의 작품은 출판사 및 공연관계자들의 자기검열에 의해 금지되었다. 월북음악인이 해금된 1988년 10월 ‘월남북음악인 작품규제 해제조치’ 이전까지 월북음악인은 음악계(양악, 국악, 대중음악)를 통틀어 그 언급 자체가 금기시되었다.

실제로 안기영·이면상·김순남·이건우 등의 이름이 195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 한국음악사에서 지워졌는데, 근대부터 1965년까지의 음악계 현황을 정리한 『음악연감』(음악연감편찬위원회 편, 세광출판사, 1966), 1945-1964년까지의 음악계 현황을 정리한 『한국예술지』 권1(대한민국예술원, 1970), 근대부터 1975년까지 예술계 활동을 정리한 『문예총감: 개화기-1975』(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6), 근대부터 1990년까지 음악계의 전개과정을 정리한 『한국음악총람: 상』(한국음악협회, 1991), 국악과 양악에서 한국적인 사항만(인물 수록함) 수록한 『한국음악사전』(대한민국예술원, 1985) 그리고 대한제국 이후 현대까지의 한국양악사를 정리한 이유선의 『한국양악백년사』(음악춘추사, 1985) 등 대표적인 한국음악사 문헌에서 월북음악인은 그 자체가 언급되지 않았다.

대중가요의 경우에도 월북작가의 작품은 1950년대 이후 음반과 가요책 및 대중가요사에서 사라졌다. 그동안 출판된 대표적인 가요집인 『한국레코오드가요사』(강사랑 편저, 한국음반제작가협회, 1967), 『가요반세기』(한국문화방송주식회사 편, 성음사, 1968), 1,346곡의 가요를 수록한 『한국가요』(세광출판사, 1979) 그리고 가요 1,927곡을 집대성한 『한국가요전집1-5』(세광출판사, 1980)에서 개사된 작품을 제외한 월북작사자와 작곡가의 곡들은 제외되었다.

35) “월북가요작가의 가창공개금지령,” 『마산일보』, 1952년 10월 21일; “월북작곡가 가곡 등 금지, 이 공보처장 담(談),” 『경향신문』, 1952년 10월 30일; “월북한 작가의 작품, 진주라 천리길 등 가곡 일체 금지,” 『동아일보』, 1952년 10월 30일. 언론에 따라 금지곡수를 다르게 발표하고 있는데, 『마산일보』는 조명암 52곡, 박영호 34곡으로, 『동아일보』는 조명암 56곡, 박영호 35곡으로 발표하고 있다.

한편 대중음악계와 음반사, 악보출판사는 월북한 작사가·작곡가·가수의 노래가 모두 금지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월북작가의 작품 중에는 월북 이전에 널리 불린 인기곡들도 포함되어 있어, 가요책 출판과 음반 제작, 공연시 다수의 인기곡들이 빠지게 되었고, 그 노래들이 사장되어 버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중음악계는 그 노래들을 살릴 방안을 고민하였고, 대안으로 노래가사를 개사(改詞)하거나 가사 또는 곡조는 그대로 놓아둔 채 작사자나 작곡자를 다른 인물로 바꾸어 발표하였다.

그 후 1960년대 설립되어 노래의 검열과 통제를 담당했던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와 ‘방송윤리위원회’에 의해 일부 개사된 곡들은 심의를 거쳐 다시 금지되기도 하였다. 월북작가의 노래 중 작사가만 월북한 경우, 가사를 제외한 경우 음악의 음반취입과 공연은 가능하였다.<sup>36)</sup>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한국전쟁 이후 반공주의 차원에서 시행된 월북작가의 작품에 대한 금지는 1960년대 이후 노래의 검열과 통제를 담당했던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의 공연금지와 방송윤리위원회의 방송금지 사유 중 하나인 ‘월북’(작사자, 작곡자)의 출발점이 되었다.

다음은 금지된 대표적인 월북음악가와 작가의 작품목록으로 대중가요계의 조명암(趙鳴岩, 1913-1993), 박영호(朴英鎬, 1911-1953), 이면상(李冕相, 1908-1989), 양악계의 안기영(安基永, 1900-1980), 김순남(金順男, 1917-1986), 이건우(李建雨, 1919-1998) 등이다.

조명암은<sup>37)</sup> 한국전쟁 전 월북함으로써 공보처에 의해 1949년 11월 5일과 1952년 10월 29일에 출판금지처분 작가로 발표되었고, 1952년 10월에는 금지목록 52곡(또는 56곡)이 발표되었다.<sup>38)</sup> 조명암의 작품 자체가 금지되었음에도

36) “곡만으로도 안된다, 문교부 왜색레코드에 견해 표명,” 『조선일보』, 1956년 1월 16일.

37) 광복 후 좌익계 문화예술단체인 조선연극건설본부 집행위원, 조선문학가동맹 회원, 조선연극동맹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1948년 정부 수립 후 월북하여 북한작가동맹 중앙위원, 북한교육문화성 부상(副相), 문학예술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38) “월북가요작가의 가창공개금지령,” 『마산일보』, 1952년 10월 21일; “월북한 작가의 작품, 진주라 천리길 등 가곡 일체 금지,” 『동아일보』, 1952년 10월 30일. 『마산일보』는 공보처 발표의 금지곡 개수만 발표하였고, 『동아일보』는 금지곡 목록까지 발표하였는데, 『마산일보』는 52곡으로, 『동아일보』는 56곡으로 발표하고 있다. 한편 『동아일보』의 공보처 발표 목록에는 타 작사자의 작품인 《님》, 《여름》, 《눈물적인 두만강》, 《추억의 부루스》 등을 조명암의 작품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가요에 대한

발표금지목록에서 작품 다수가 누락되었는데, 이는 당시 조명암의 가요에 대한 정리된 정보(작곡가, 작사가, 작곡년도)가 없어 수집가능한 가요만을 발표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조명암의 작사곡은 640곡으로 추정되고,<sup>39)</sup>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는 539곡(2018)이 조명암의 작품으로 등록되어있다. 1988년 10월 ‘월남북음악인 작품규제 해제조치’에서도 당시까지 북한의 고위직인 조선문학예술총동맹 부위원장이었다는 이유로 해금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후 1992년 8월 14일 킹(King) 레코드사의 해금청원에 의해 재심을 거쳐 해금되었다.

#### 〈표 4〉 조명암 작사 주요 금지곡(공보처, 1952.10.29.)

경기나그네(김해송 작곡, 백년설 노래, 1942), 고향설(이봉룡 작곡, 백년설 노래, 1942), 고향소식(이춘인 작곡, 백년설 노래, 1943), 팔세를 마오(박시춘 작곡, 이난영 노래, 1938), 기로의 황혼(박시춘 작곡, 남인수 노래, 1938), 꼬집힌 풋사랑(박시춘 작곡, 남인수 노래, 1938), 풀망태 목동(김용환 작곡, 이화자 노래, 1938), 낙화삼천(김해송 작곡, 김정구 노래, 1942), 낙화유수(이봉룡 작곡, 남인수 노래, 1942), 날짜없는 일기(김해송 작곡, 이난영 노래, 1941), 남매(이봉룡 작곡, 남인수 노래, 1942), 남아일생(이봉룡 작곡, 남인수 노래, 1943), 남행열차(박시춘 작곡, 이난영 노래, 1939), 내고향(박시춘 작곡, 백년설 노래, 1942), 누님의 사랑(박시춘 작곡, 백년설 노래, 1942), 눈오는 네온가(박시춘 작곡, 남인수 노래, 1940), 눈물적인 두만강, 님, 다방의 푸른꿈(김해송 작곡, 이난영 노래, 1939), 뒷골목청춘(이봉룡 작곡, 남인수 노래, 1939), 돌아가자 내고향(김해송 작곡, 계수남 노래), 망루의 결사대(김해송 작곡, 백년설 노래, 1943), 목단강 편지(박시춘 작곡, 이화자 노래, 1942), 무정천리(박시춘 작곡, 남인수 노래, 1941), 북경종아요(박시춘 작곡, 장세정 노래, 1940), 사랑은 가시밭(박시춘 작곡, 이난영 노래, 1938), 서귀포 칠십리(박시춘 작곡, 남인수 노래, 1943), 세월은 간다(김해송 작곡, 이난영 노래, 1948), 아주까리등불(이봉룡 작곡, 최병호 노래, 1941), 아주까리수첩(이봉룡 작곡, 백년설 노래, 1942), 어머니 안심하소서(김해송 작곡, 남인수 노래, 1943), 안개낀 상해, 어머니 전상서(김용환 작곡, 이화자 노래, 1939), 역마차(김해송 작곡, 장세정 노래, 1941), 여름, 요즈음 찾집(김해송 작곡, 박향림 노래, 1941), 울며헤진 부산항(박시춘 작곡, 남인수 노래, 1939), 원한의 산맥(이봉룡 작곡, 최병호 노래), 이몸이 죽고죽어(김해송 작곡, 백년설 노래, 1942), 인생갈(표기오류로 추정), 인생선(線, 이봉룡 작곡, 남인수 노래, 1942), 인생출발(박시춘 작곡, 남인수 노래, 1941), 일가친척(이봉룡 작곡, 남인수 노래, 1943), 잘있거라 단발령(김해송 작곡, 장세정 노래, 1940), 정든땅(이봉룡 작곡, 백년설 노래, 1943), 진달래시첩(이봉룡 작곡, 이난영 노래, 1941), 청춘야곡(박시춘 작곡, 남인수 노래, 1939), 청춘의 헛소문(박시춘 작곡), 청춘항구(박시춘 작곡, 남인수 노래, 1941), 추억의 부루스, 총각진정서(박시춘 작곡, 김정구 노래, 1938), 코스모스탄식(김해송 작곡, 박향림 노래, 1939), 포구의 인사(이봉룡 작곡, 남인수 노래, 1941), 화류춘몽(김해송 작곡, 이화자 노래, 1940), 항구마다 팔세더라(박시춘 작곡, 남인수 노래, 1938), 황포돛대(박시춘 작곡, 최병호 노래, 1943)

정리된 정보(작곡자, 작사자, 작곡년도)가 없는 대중음악계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39) 장유정, 주경환, 『조명암의 대중가요』, 565.

박영호는<sup>40)</sup> 1946년 월북함으로써 공보처에 의해 1949년 11월 5일과 1951년 10월 1일, 1952년 10월 29일에 출판금지처분 작가로 발표되었고, 1952년 10월에는 금지목록 34곡(또는 35곡)이 발표되었다.<sup>41)</sup> 박영호의 모든 작품이 금지되었음에도 조명암의 경우처럼 발표목록에서 작품 다수가 누락되었는데, 이 역시 당시 박영호의 가요에 대한 정보(작곡가, 작사가, 작곡년도)가 없어 수집가능한 작품만을 발표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박영호가 쓴 대중가요 가사는 458곡으로 추정되고,<sup>42)</sup>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는 박영호의 작품으로 56곡(2018)이 등록되어있다. 1988년 10월 ‘월남북음악인 작품규제 해제조치’에 따라 해금되었다.

#### 〈표 5〉 박영호 작사 주요 금지곡(공보처, 1952.10.29.)

기타에 울음 실어(이재호 작곡, 채규엽 노래, 1939), 꽃서울(하정남 작곡, 김해송 노래, 1936), 꽃마차, 눈물의 수박등, 더벅머리과거(박시춘 작곡, 백년설 노래, 1942), 마도로스 수기(이재호 작곡, 백년설 노래, 1939), 만포선 길손(이재호 작곡, 백년설 노래, 1941), 망향초사랑(이재호 작곡, 백년설 노래, 1941), 물방아사랑(박시춘 작곡, 남인수 노래, 1937), 무명초향구, 번지없는 주막(이재호 작곡, 백년설 노래, 1940), 북국오천기로(이재호 작곡, 채규엽 노래, 1939), 불효자는 옵니다, 비오는 해관, 비나리는 부두, 사이공부두, 삼각산 손님, 석유등 길손(이재호 작곡, 백년설 노래, 1941), 세세년년(이재호 작곡, 진방남 노래, 1940), 연락선은 떠난다(김해송 작곡, 장세정 노래, 1937), 오빠는 풍각쟁이(김해송 작곡, 박향림 노래, 1938), 아리랑낭낭, 유랑극단(전기현 작곡, 백년설 노래, 1939), 울어라 문풍지(김해송 작곡, 이난영 노래, 1940), 인생극장(문호월 작곡, 남인수 노래, 1937), 이동천막, 잘있거라(박시춘 작곡, 남인수 노래, 1937), 잘있거라 항구야, 직녀성(김교성 작곡, 백년설 노래, 1941), 천리정처(박시춘 작곡, 백년설 노래, 1942), 천리타향(문호월 작곡, 남인수 노래, 1937), 첫

40) 광복 후 좌익계 문화예술단체인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에 참여하였고, 1946년에 월북하여 ‘북조선연극인동맹’ 초대 위원장을 지냈다. 한국전쟁 때 조선인민군 중군작가로 참전하였다가 휴전을 앞두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41) “월북가요작가의 가장공개금지령,” 『마산일보』, 1952년 10월 21일; “월북한 작가의 작품, 진주라 천리길 등 가곡 일체 금지,” 『동아일보』, 1952년 10월 30일. 『마산일보』는 공보처 발표의 금지곡 개수만 발표하였고, 『동아일보』는 금지곡 목록을 발표하였는데, 『마산일보』는 34곡으로, 『동아일보』는 36곡으로 다르게 발표하고 있다. 한편 『동아일보』의 공보처 발표 목록에는 《꽃마차》, 《무명초향구》, 《불효자는 옵니다》, 《비오는 해관》, 《비나리는 부두》, 《사이공부두》, 《삼각산 손님》, 《이동천막》, 《잘있거라 항구야》, 《청노새탄식》, 《눈물의 수박등》, 《아리랑낭낭》, 《첫사랑》 등 타 작사자의 작품을 박영호의 작품으로 발표하고 있다.

42) 서영희, “일제강점기 박영호의 대중가요 가사작품 연구,” 『민족문화논총』 33 (2006), 230.

사랑, 청노새탄식, 한잔에 한잔사랑(이재호 작곡, 백년설 노래, 1940), 향구의 선술집(박시춘 작곡, 김정구 노래, 1937)

이면상은<sup>43)</sup> 한국전쟁 전 월북함으로써 공보처에 의해 1949년 11월 5일과 1951년 10월 1일, 1952년 10월 29일에 출판금지처분 작가로 발표되었고, 1952년 10월에는 금지목록 10곡이 발표되었다.<sup>44)</sup> 이면상도 모든 작품이 금지되었음에도 발표목록에는 작품 다수가 누락되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는 21곡이 이면상의 작품으로 등록되어있다. 1988년 10월 ‘월남북음악인 작품규제 해제조치’에 따라 해금되었다.

#### 〈표 6〉 이면상 작곡 주요 금지곡(1949.11.-1988.10.)

가노라 그대여(남궁춘 작사, 임현익 노래, 1934), 개나리타령(김소운 작사, 왕수복 · 윤건영 노래, 1934), 가야금 야곡(고마부 작사, 박단마 노래, 1939), 가을의 황혼(왕평 작사, 선우일선 노래, 1934), 갑산 큰애기(김성집 작사, 박단마 노래, 1940), 그리운 아리랑(왕평 작사, 선우일선 노래, 1935), 금노다지 타령(금운탄 작사, 김용환 노래, 1936), 꼭 오세요(이부풍 작사, 박단마 노래, 1938), 꽃을 잡고(김안서 작사, 선우일선 노래, 1934), 꽃피는 상해(왕평 작사, 선우일선 노래, 1939), 꿈꾸는 녹야(김성집 작사, 이규남 노래, 1936), 낙동강 칠백리(강남월 작사, 선우일선 노래, 1936), 남국의 사랑(김월탄 작사, 조영심 노래, 1937), 남포의 추억(금운탄 작사, 선우일선 노래, 1935), 날 데려가소(사마동 작사, 황금심 노래, 1939), 날라리바람(이부풍 작사, 박단마 노래, 1939), 남포의 추억(금운탄 작사, 선우일선 노래, 1935), 네가 좋더라(조명암 작사, 이난영 노래, 1940), 내일 가서요(김정호 작사, 왕수복 노래, 1934), 님의 배(유도순 작사, 김선초 노래, 1935), 대기는 향기롭다(왕평 작사, 전옥 · 윤건영 노래, 1936), 대보름 달맞이(이부풍 작사, 박단마 노래, 1940), 동산(최남선 작사, 정훈모 노래, 1973), 두견야 우지마라(김성집 작사, 박단마 노래, 1940), 두견야 우지마라(이부풍 작사, 황금심 노래, 1934), 등글등글삼시다(이부풍 작사, 김옥진 노래, 1938), 모던 난봉가(이부풍 작사, 박단마 · 이인근 노래, 1938), 무정세월(왕평 작사, 선우일선 노래, 1939), 무정한 사람(김화암 작사, 조백오 노래, 1938), 물레에 시름없고(장초향 작사, 선우일선 노래, 1937), 물레방아(이부풍 작사, 박단마 노래, 1939), 바다로 가자(추야월 작사, 백석정 노래, 1936), 바람(임창인 작사, 김선영 노래, 1934), 변할 수 있나요(이부풍 작사, 박단마 노래, 1939), 별한(왕평 작사, 선우일선 노래, 1935), 봉자의 노래(유도순 작사, 채규업 노래, 1934),

43) 광복 후 1946년 북조선음악동맹 위원장, 1953년 조선작곡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되었고, 1957년에는 평양음악대학 총장에 임명되었다. 1959년 8월 김일성의 만주 항일 무장투쟁을 형상화한 작품 <밀림야 말하라>로 인민상(人民賞)을 수상하였고, 1961년 북한 최고의 예술가에게 부여되는 인민예술가 칭호를 받았다.

44) “월북가요작가의 가장공개금지령,” 『마산일보』, 1952년 10월 21일; “월북한 작가의 작품, 진주라 천리길 등 가곡 일체 금지,” 『동아일보』, 1952년 10월 30일.

비오는 이국향(노다지 작사, 송달협 노래, 1939), 산간처녀(왕평 작사, 김용환 노래, 1936), 산너머 그리운 님(이하운 작사, 임현익 노래, 1934), 상사단장(노다지 작사, 조백오 노래, 1939), 상해야가씨(이부풍 작사, 박단마 노래, 1939), 세월가(편월 작사, 선우일선 노래, 1935), 세월만 흐릅니다(왕평 작사, 선우일선 노래, 1936), 수로천리(김동환 작사), 수부의 아내(유도순 작사, 전옥 노래, 1934), 신방아타령(이호 작사, 선우일선 노래, 1939), 신수심가(추야월 작사, 선우일선 노래, 1936), 신이팔청춘(강남월 작사, 선우일선 노래, 1935), 심청의 노래(김성집 작사, 황금심 노래, 1939), 여로인생(김운탄 작사, 윤건영 노래, 1936), 새로동동 못잊어요(남북평 작사, 박단마 노래, 1937), 야속타 기억은(김안서 작사, 조금자 노래, 1935) 약산동대(김포몽 작사, 박단마 노래, 1940), 여보세요 네(김운탄 작사, 윤건영 · 전옥 노래, 1937), 여정다한(편월 작사, 윤건영 · 김용환 노래, 1935), 옛산성(김안서 작사, 임현익 노래, 1936), 오작교(김운탄 작사, 선우일선 노래, 1936), 울고싶은 마음(이부풍 작사, 김복희 노래, 1938), 원망스럽소(이부풍 작사, 황금심 노래, 1939), 원망가(왕평 작사, 선우일선 노래, 1935), 입술을 깨물면서(이부풍 작사, 황금심 노래, 1939), 장가를 들게 되면(이부풍 작사, 이인근 노래, 1937), 장미의 꿈(김운탄 작사, 오리엔탈리듬보이즈 노래, 1935), 정열의 마도로스(김운탄 작사, 백석정 노래, 1936) 조선의 달(왕평 작사, 선우일선 노래, 1935), 조선의 밤(김운탄 작사, 선우일선 노래, 1935), 종군간호부의 노래(김억 작사, 김안나 노래, 1938), 진주라 천리길(이가실 작사, 이규남 노래, 1941), 짜릿짜릿 사랑가(이부풍 작사, 박단마 노래, 1938), 처녀열여덟은(김정호 작사, 왕수복 노래, 1937), 처녀열여덟엔(천우학 작사, 정일경 노래, 1934), 처녀제(김운탄 작사, 선우일선 노래, 1935), 천리에 입을 두고(이부풍 작사, 조백오 노래, 1938), 청춘문답(이부풍 작사, 김봉명 노래, 1940), 청춘행진곡(추야월 작사, 오리엔탈합창단 노래, 1935), 충후의 용(최남선 작사, 임동호 노래, 1937), 치마폭 눈물(강영숙 작사, 조백오 노래, 1940), 포구의 우는 물새(김운탄 작사, 선우일선 노래, 1936), 한강수타령(유한 작사, 선우일선 노래, 1939), 한양은 천리원정(조명암 작사, 황금심 노래, 1937), 행주곡(行舟曲, 김안서 작사, 윤건영 노래, 1934), 흥로인생(김운탄 작사, 윤건영 노래, 1936)

안기영은<sup>45)</sup> 한국전쟁 후 월북함으로써 1951년 10월 1일과 1952년 10월 29일에 출판금지처분 작가로 발표되었고, 1952년 10월에는 금지목록 3곡이 발표되었다.<sup>46)</sup> 안기영도 모든 작품이 금지되었음에도 발표목록에는 작품 다수가 누락되었다. 아래의 금지목록은 1988년 10월 문공부가 발표한 월북음악인의 주

45) 광복 후 좌익계 음악단체인 음악건설본부 작곡부장, 조선음악가동맹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해방전사의 노래>> 등의 해방가요를 발표하였다. 1947년 창당된 근로인민당(勤勞人民黨)의 음악부장으로 활동하였고, 당수 여운형(呂運亨, 1886-1947)이 암살되어 장례식 때 '추도곡'을 작곡해 지휘했다는 이유로 음악활동이 금지되었다. 1950년 9월 월북하여 1951년 7월부터 평양음악대학 성악 교수로 재직하면서, 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과 상무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46) "월북한 작가의 작품, 진주라 천리길 등 가곡 일체 금지," 『동아일보』, 1952년 10월 30일.

요 해금곡과<sup>47)</sup> 광복 이후 불린 해방가요 등이다. 광복 이후 해방공간에서 안기영의 작품 다수는 음악교과서에 수록되어 불렸다.<sup>48)</sup> 그만큼 안기영은 당시 대중적 인기를 얻었던 음악가였다. 대중가요 작가인 조명암·박영호와 달리 안기영·김순남·이건우 등의 양악 작곡가들은 노래뿐만 아니라 기악작품도 금지되었다.

### 〈표 7〉 안기영 작곡 주요 금지곡(1951.10.-1988.10.)

가는 이의 설음(모영운 작사, 1936), 견우직녀(향토가극, 1942), 그리운 강남(김석승 작사, 1928), 밀밭(김안서 작사, 1931), 그리운 고향(서송악 작사, 1936), 금강귀로(이은상 작사, 1931), 꽃밭(권중찬 작사, 1931), 꿈 초차 속엿새라(김원숙 작사, 1936), 남산에 올라(이은상 작사, 1929), 달아달아(전래동요, 1936), 등산가(안기영 작사), 뜻(주요한 작사, 1929), 마의 태자(이은상 작사, 1929), 만월대(김안서 작사, 1931), 물새(이은상 작사, 1929), 밀밭(김안서 작사, 1931), 방아타령(김동환 작사, 1936), 뱃사공의 아내(김동환 작사, 1931), 복숭아꽃(김안서 작사, 1931), 봄비(주요한 작사, 1936), 붓그리움(주요한 작사, 1931), 산고개(김안서 작사, 1929), 산새(목일신 작사, 1936), 살구꽃(김안서 작사, 1929), 살아자다(이광수 작사, 1931), 새나라로(이광수 작사, 1931), 새야새야(전래동요, 1936), 어머니와 아들(주요한 작사, 1931), 열시구 줄구나(안기영 작사, 1936), 영감님(남궁랑 작사, 1931), 우리 아기 날(이광수 작사, 1929), 오! 나의 맘을(서송악 작사, 1936), 오늘도 조약돌을(이은상 작사, 1929), 유랑객의 노래(김경 작사, 1936), 은하수(향토가극, 1943), 자진산타령(1931), 작별(김경 작사, 1936), 조선의 꽃(이은상 작사, 1929), 진달래꽃(김소월 작사, 1929), 추억(박순덕 작사, 1929), 춘사(春詞, 이은상 작사, 1929), 콩쥐밭쥐(향토가극, 1941), 하소연(이은상 작사, 1936), 한강의 노래(이순영 작사, 1929), 한양의 봄(1931), 해당화(김안서 작사, 1929) 힘(주요한 작사, 1936)

김순남은<sup>49)</sup> 1948년 월북함으로써 공보처에 의해 1949년 11월 5일과 1951년 10월 1일에 출판금지처분 작가로 발표되었다. 아래 주요 금지곡 목록은

- 47) “월북작가의 음악·미술작품 규제 해제계획,” 문화공보부 내부문서, 1988년 10월 27일.  
 48) 수록 음악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입시중등음악교본』(중등음악교과서편찬위원회, 1946); 『중학음악교본1권』(전국교육음악협회, 국민음악연구소, 1947); 『초등노래책 5학년』(군정청 문교부, 1948); 『초등노래책 6학년』(군정청 문교부, 1948); 『중등노래교본 초급』(계정식, 교회음악연구회, 1946); 『어린이노래책1집』(나운영, 광문사, 1946).  
 49) 광복 후 좌익계 음악단체인 조선음악건설본부와 조선프롤레타리아음악동맹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남한 정부 수립 이후 좌익 활동이 불법화되고, 북한국가가 제정되기 전 국가 대응으로 불린 <<인민항쟁가>>를 작곡했다는 이유로 체포령이 떨어지자 도피생활을 하다가 1948년 7월 월북하였다. 월북 후 평양음악전문학교(평양음악대학의 전신)의 교수로 재직하였으나, 1953년 이후 남로당 계열이 급격히 몰락하면서 사상투쟁에 연루되어 숙청되었다.

1988년 10월 문공부가 발표한 월북음악인의 주요 해금곡<sup>50)</sup>과 광복 이후 작곡한 해방가요 등이다. 당시 미군정청 문화담당 참사관으로 근무했고(1945.11.-1947.12.), 후에 네바다주립대학교 교수를 지낸 줄리어드음악학교 출신의 피아니스트 헤이모위츠(Ely Haimowitz, 1920-2010)는 김순남을 “내가 조선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sup>51)</sup> 극찬하였고, 그의 가곡 《산유화》와 《피아노협주곡》 등을 미국 악단에 소개하기도 했다.

### 〈표 8〉 김순남 작곡 주요 금지곡(예술가곡, 1949.11.-1988.10.)

---

고향의 어머니(정서춘 작사), 그를 꿈꾼 밤(김소월 작사, 1947), 기차(1946), 바다(김소월 작사, 1947), 산유화(김소월 작사, 1947), 상열(오장환 작사, 1944), 잊었던 마음(김소월 작사, 1947), 양(오장환 작사, 1948) 자장가1(김순남 작사, 1948), 자장가2(김순남 작사, 1948), 자장가3(박찬모 작사, 1948), 진달래꽃(김소월 작사, 1948), 철공소(김복원 작사, 1944), 초혼(김소월 작사, 1947), 탕자(박노춘 작사, 1944)

---

이건우는<sup>52)</sup> 한국전쟁 후 월북함으로써 1951년 10월 1일에 출판금지처분 작곡가로 발표되었다. 그의 작품은 1951년 이후 모두 금지되었고, 1988년 10월 ‘월남북음악인 작품규제 해제조치’에 따라 해금되었다. 이진우 주요 금지곡 목록은 1988년 10월 문공부가 발표한 월북음악인의 주요 해금곡<sup>53)</sup>과 광복 이후 작곡된 해방가요 등이다.

50) “월북작가의 음악·미술작품 규제 해제계획,” 문화공보부 내부문서, 1988년 10월 27일.

51) Ely Haimowitz, “조선을 떠나면서,” 『신세대』, 1948년 5월호, 22.

52) 광복 후 좌익계 음악단체인 조선프롤레타리아음악동맹과 조선음악가동맹에서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다가 1949년 9월 좌익인사 검거 때 구속되었고,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한 뒤 월북하였다. 월북 후 조선음악동맹 중앙위원 겸 상무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53년 숙청되었다가 1960년 복권이 되어 활발한 창작활동을 벌였다. 북한에서는 “민족을 위한 참다운 음악 창작의 길에서 이룩한 보배”로 평가받고 있다.

53) “월북작가의 음악·미술작품 규제 해제계획,” 문화공보부 내부문서, 1988년 10월 27일.

### 〈표 9〉 이견우 작곡 주요 금지곡(예술가곡, 1951.10.-1988.10.)

가는 길(김소월 작사, 1948), 금잔디(김소월 작사, 1948), 꽃가루 속에(이용악 작사, 1948), 노들강(박아지 작사, 1947), 붉은 호수(김소월 작사, 1948), 비들기, 반대(이병철 작사, 1948), 산(김소월 작사, 1948), 산길(박산운 작사, 1948), 소곡(小曲)(정지용 작사, 1948), 심화(心化)(박아지 작사, 1947), 엄마야 누나야(김소월 작사, 1948), 자장가(박세영 작사, 1948), 추풍령(박산운 작사, 1948), 피(박아지 작사, 1947)

## IV. 시국(정치성)과 노래검열

광복 이후 1950년대까지 노래 검열의 사유와 관계 이데올로기는 왜색(반일주의)과 월북(반공주의)이었는데, 또 다른 사유 중에 ‘치안’(시국)이 있다. 당시 검열기준은 “축음기레코드가 치안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축음기레코드취체규칙, 제4조), “레코드가 치안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문교부, 레코드제작 취체조치, 제4항), “적성국가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것”(문교부령, 국산레코드 제작 및 외국 수입레코드에 대한 레코드 검열기준, 제4항) 등이었는데, 기준이 주관성을 띤 표현을 하고 있어 검열 주최에 의해 자의적 판단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 검열판단의 자의적 판단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은 치안을 시국과 관련지어 금지곡이 된 가수 장세정의 《울어라 은방울》(1948)과 가수 남인수의 《여수야화》(1949)였다.<sup>54)</sup>

### 1. 시국 비판과 《울어라 은방울》 금지(1948)

제1공화국 정부는 좌익계 작가의 노래가 아니더라도 가사 내용이 남북분단과 같은 민족 이데올로기를 다루는 경우는 시국에 좋지 못하다 하여 금지시켰는데, 가수 장세정이 노래한 《울어라 은방울》(이가실 작사, 김해송 작곡, 1948.04.)이 그 경우이다. 이 가요는 1948년 4월 장세정의 노래로 오케레코드사에서 《울

54) 이외에도 《물방아 도는 내력》(손로원 작사, 이재호 작곡, 박재홍 노래, 1953)은 자유당 정권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검열 받아 금지곡이 되었고, 《가거라 삼팔선》(이부풍 작사, 박시춘 작곡, 남인수 노래, 1948)은 북진통일론과 관계되어 제1공화국하에서 한때 금지곡이 되었다는 설이 있다. 김정섭, 『한국대중문화예술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7), 120; 박찬호, 『한국가요사2』 (서울: 미지북스, 2009), 61-62.

어라 은방울》(오케레코드, 음반번호 8151-B)로 발매되었고, 몇 달 뒤 서울레코드사에서 《해방된 역마차》(서울레코드, 음반번호 S-3001-A-105)라는 제목으로 바꿔 같은 가수인 장세정의 노래로 재발매되었다.

《울어라 은방울》의 가사 내용은 광복의 기쁨과 해방공간 당시의 사회의식을 드러냈는데, 특히 2절 가사는 남북분단과 관계된 민족현실을 비판적 시각으로 드러내었다. 이에 정부는 2절 가사 “자유의 종이 울어 팔일오는 왔건만 독립의 종소리는 언제 우느냐, 멈춰라 역마차야 보신각이 여기다 포장을 들고보니 종은 잠자네”의 구절이 독립된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위(國威)를 부인하는 듯한 내용과 소련의 식민지화를 기도하는 인공국(人共國, 북한)을 의미하는 듯 해석된다 하여 1948년 10월 《울어라 은방울》과 《해방된 역마차》 음반을 압수하고 가창을 금지시켰다.<sup>55)</sup>

원작사자는 이가실(조명암)이었으나, 오케레코드사의 《울어라 은방울》과 서울레코드사의 《해방된 역마차》로의 발매 시에는 문예부 작사로 표기되었다. 이는 이가실이 월북작가 조명암(1948년 후반 월북)의 예명이어서 좌익계 작가 작품에 대한 통제를 피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울어라 은방울》

(이가실 작사, 김해송 작곡, 장세정 노래, 1949.04.)

- |  |   |   |
|--|---|---|
| 1 해방된 역마차에 태극기를 날리며<br>누구를 신고 가는 서울거리나<br>울어라 은방울아 세종로가 여기다<br>삼각산 돌아보니 별들이 떴네 | 2 자유의 종이 울어 팔일오는 왔건만<br>독립의 종소리는 언제 우느냐<br>멈춰라 역마차야 보신각이 여기다<br>포장을 들고보니 종은 잠자네 | 3 연보라 코스모스 양가슴에 안고서<br>누구를 찾아가는 서울색시나<br>달려라 푸른말아 덕수궁이 여기다<br>채찍을 휘두르니 하늘이 도네 |
|--|---|---|

공식적인 기록이 없어 확정할 수 없으나, 《울어라 은방울》은 1948년 8월 정부 수립 이후 내린 최초의 금지곡으로 추정된다.

한편 《울어라 은방울》은 1960년대 박남포(반야월의 필명) 개사, 이봉룡 작곡으로 바뀌 재취입되었다. 이 가요는 원작사자 조명암이 1948년 말 월북하였

55) “〈해방된 역마차〉, 음반을 압수한다.” 『영남일보』, 1949년 10월 1일; “〈해방된 역마차〉, 음반을 압수.” 『충청매일』, 1949년 10월 2일; “음반을 회수, 해방된 역마차.” 『동광신문』, 1949년 10월 20일; “불온음반 취체, 첫 메스에 〈울어라 은방울〉 발금.” 『산업신문』, 1950년 1월 5일.

고, 원작곡자 김해송은 한국전쟁 당시 납북되었으며, 가사내용이 문제시되는 등 금지곡의 요건을 다 갖춘 것이었다. 이에 원작곡자의 처남인 이봉룡은 금지곡 지정 당시 문제가 된 가사를 반야월에게 의뢰하여 개사하고, 작곡자를 자신으로 바꾸어 노래가 금지되는 것을 피한 것이다. 가사의 정치색을 지우기 위해 ‘해방된 역마차’를 ‘은마차 금마차’로, ‘자유의 종’, ‘독립의 종소리’, ‘좋은 잠자네’를 절을 바꿔 다른 이미지인 ‘성당’, ‘젊은 가슴 새희망’, ‘건설에 청춘복지’ 등으로 바꾸었다. 작사자와 작곡자를 바꿈으로서 1960년대 이후 노래의 검열과 통제를 담당했던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와 방송윤리위원회의 금지곡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개사 가사는 재취입 음반에 따라 3개의 버전(version)이 존재하는데, 첫 개사 가사는 3절 구조였고, 이후 2절 구조의 2개 버전이 있다. 2절 버전 중 하나에는 1962년 출판한 엘케이엘레코드(L.K.L. Records)의 음반(음반번호 L.K.L.105)이 있다. 현재 《올어라 은방울》의 출판악보는 2절 구조의 개사 가사(Ver.2 일부 수정)를 사용하고 있다.

### 《올어라 은방울》 개사 가사

(박남포 개사, 이봉룡 작곡)

Ver.1	Ver.2(L.K.L.-105, 1962)	Ver.3
1 은마차 금마차에 태극기를 날리며 사랑을 신고가는 서울거리나 올어라 은방울아 세종로가 여기다 인왕산 바라보니 달빛도 곱네	1 은마차 금마차에 태극기를 날리며 사랑을 신고가는 서울거리나 올어라 은방울아 세종로가 여기다 인왕산 바라보니 달빛도 곱네	1 은마차 금마차에 태극기를 날리며 건설을 노래하는 서울거리나 올어라 은방울아 세종로가 여기다 삼각산 바라보니 달빛도 곱네
2 연보라 코스모스 가슴에다 안고서 누구를 찾아가는 서울색시나 달려라 은마차야 보신각이 여기다 가로수 흔들흔들 내온빛 곱다	2 연보라 코스모스 가슴에다 안고서 누구를 찾아가는 서울색시나 달려라 은마차야 보신각이 여기다 가로수 흔들흔들 내온빛 곱다	2 은마차 금마차에 태극기를 날리며 자유를 울부짖는 서울거리나 올어라 은방울아 세종로가 여기다 인왕산 바라보니 달빛도 곱네
3 성당에 음악종이 은은히도 들리며 자유가 나래지는 서울지붕밑 몽쳐라 젊은가슴 새희망을 위하여 건설에 청춘복지 어서 달리자		

〈사진 5〉 《울어라 은방울》 음반라벨(오케레코드 8151-B, 1948)



## 2. ‘여순사건’과 《여수야화》 금지(1949)

광복 직후 한국전쟁까지인 ‘해방과 분리공간’에서 우리 민족은 좌우익 문제로 엄청난 희생을 치렀는데, 그 최대 참극은 1948년 ‘제주4.3사건’과 후속으로 몰고 온 ‘여순사건’(여수순천10.19사건)이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지역에 주둔 중이던 제14연대 소속 일부 병사들이 ‘제주4.3사건’ 진압 출동명령에 불복해 봉기를 일으키고, 여기에 일부 시민들이 봉기에 참여한 사건으로, 정부의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 희생되었다. 제주4.3사건과 함께 좌우익의 문제로 빚어진 민족사의 비극적 사건이었다.

1949년 7월 가수 남인수는 아세아(Asia)레코드사를 통하여 대중가요 《여수야화》(麗水夜話, 김초향 작사, 이봉룡 작곡, 남인수 노래, 1949)를 발표하였다. SP음반(아세아레코드 A1003)으로 발표된 이 음반에는 A면에 《해같은 내마음》(김초향 작사, 이봉룡 작곡)과 B면에 《여수야화》가 수록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1949년 9월 1일 가요 《여수야화》에 대해 “가사에 있어 불순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민심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라는 이유로 압수와 동시에 판매금지를 취하였다.<sup>56)</sup> 《여수야화》가 노래작곡시기, 당시의

사회적 사건, 노래의 가사내용 등과 관계지어볼 때 여순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 《여수야화》

(김초향 작사, 이봉룡 작곡, 남인수 노래, 1949.07.)

1 무너진 여수항에 우는 물새야	2 가슴을 파고드는 저녁 바람아	3 왜놈이 물러갈 땐 조용하더니
우리집 선돌아범 어데로 갔나	북정 간 딸 소식을 전해 주려므나	오늘에 식구끼리 싸움은 왜 하나요
창없는 빈집속에 달빛이 새어들면	에미는 이 모양이 되었다 만은	의견이 안 맞으면 따지고 살지
철없는 새끼들은 웃고만 있네	우리 딸 살림살이 허벅 지드나	우리 집 태운사람 얼굴 좀 보자

가사는 여순사건 이후 당시 여수의 비극적 상황을 넋두리로 표현하였다. 가사 내용 중 1절은 여순사건으로 끌려가고 희생된 가족과 이웃을 묘사하였고, 3절은 좌우익 대립에 의한 민족의 비극을 표현하였다.

정부로서는 이 노래가 발표되면서 민심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레코드 판매를 금지하는 사후검열을 발동하였다. 곧 《여수야화》는 음반발표 2개월 만에 정부에 의해 금지곡이 되었다. 음반판매뿐 아니라 공연, 악보출판과 방송도 금지되었다. 이후 《여수야화》는 대중가요집(노래책)에서 제외되었고, 음반재취입이나 재발매가 제한되는 등 한국가요계에서 존재가 사라졌다.

《여수야화》의 작사가 김초향은 본명이 아니다. 당시 KBS드라마를 쓰던 작가로, 예명(藝名)은 김건(金健)이고, 본명은 김창기(金昌基, 1912-?)이다. 그는 1935년 7월에 《섬색시》를 시발로 극작가의 길로 들어섰고, 1941년 2월 결성된 ‘극작가동우회’(조선연극협회 산하조직)에서 유치진·임선규 등과 함께 활동하였다. 광복 이후 좌익계 연극단체인 조선프롤레타리아연극동맹에 가담하였고, 한국전쟁 중 납북되었다. 작곡가 이봉룡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당대 최고의 여류가수였던 이난영의 친오빠이다.

《여수야화》는 1960년대 창립되어 노래의 검열과 통제를 담당했던 한국예술통화윤리위원회의 공연금지곡과 방송윤리위원회의 방송금지곡 목록에도 빠져 있는데, 이는 1960년대 들어 《여수야화》가 금지곡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56) “불온레코드 「여수야화」 판금(販禁),” 『경향신문』, 1949년 9월 3일; “레코드 여수야화 발매를 금지,” 『한성일보』, 1949년 9월 3일.

1949년 9월 금지곡 지정 이후 한국가요계에서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려 다루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6〉 《여수야화》 음반라벨(아세아레코드 A1003, 1949)



〈사진 7〉 《여수야화》 광고(조선중앙일보, 1949.07.31.)



노래 검열의 정치적 해석은 노래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취해진 것이다. 노래가 수용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검열사유의 주관성 즉 자의적 판단가능성이 정치적(권력적) 검열(금지)이라는 문제제기를 낳은 것이다.

## V. 맺는말

1950년대의 지배이데올로기는 반일주의와 반공주의였다. 반일주의는 일제 잔재 청산과 민족정체성 확립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반공주의는 정부 수립 이후 국가 존립의 이념이자 모든 정치적·사회적 갈등과 비판을 봉(封)하는 도구가 되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에 대한 처참한 기억은 전 국민으로 하여금 반일주의와 반공주의에 동의하게 만들었다. 반일·반공 이외에는 사회적 담론의 생산·소통이 불가능한 환경이었다. 곧 광복과 냉전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의해 반일주의와 반공주의가 사회체제구축의 도구가 된 것이다. 반공주의는 ‘국가보안법’(1948.12.01. 공포) 제정과 국민통제장치인 ‘국민반’(國民班, 1957.03.)<sup>57)</sup> 조직을 생산하였고, 국민운동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였다.<sup>58)</sup>

해방공간의 문화예술계는 일제 잔재 청산에는 일치된 목소리를 내었지만, 예술의 이념성에 대해서는 좌우로 분열되어 갈등을 겪었다. 해방공간에는 예술의 이념성을 주장한 좌익예술계의 활동이 활발하였으나, 정부 수립 이후에는 예술의 비이념성을 주장하는 우익예술계가 활동의 주도권을 잡았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사회 전반에 반공주의가 자리 잡으면서 문화예술계도 반공을 표방한 예술단체가 활동하였다.

반일주의와 반공주의는 왜색가요의 단속과 월북작가 노래의 금지조치를 위한 정당화의 기제(機制)로 작용하였다. 노래에 대한 검열과 금지는 노래 텍스트의 사회적 소통을 통제하고 음악가의 자기검열 등 음악사회의 전반을 규율하는 원리로 작용하였다. 정부의 검열정책과 반공주의에 의해 예술의 사회성은 사라지고, 예술에서 사회성을 논하는 자체가 예술계의 자기검열에 의해 금기시되었다. 월북 사유에 의한 금지곡들은 1988년 10월 27일 문화공보부의 ‘월남북음악인 작품규제 해제조치’가 있기까지 한국양악사와 대중음악사에서 사라졌다. 작곡과 작가에 대한 언급 자체가 금기시되어 문헌과 노래책, 음반에서 사라(제외)졌다.

57) 국민반은 일제 식민통치 시기의 ‘애국반’에 연원을 둔 것으로, 10호 내지 20호 단위로 묶어 국민들을 상호 감시토록 한 관변통제조직이라고 비판받았다. “국민운동강화,” 『경향신문』, 1949년 8월 26일; “국민반 강화, 국회서 문제화시,” 『경향신문』, 1957년 4월 5일; “국민반 즉시 해체요구,” 『동아일보』, 1957년 4월 24일.

58) “국민운동강화,” 『경향신문』, 1949년 8월 26일.

반공주의는 노래검열방식도 결정하였는데, 일제강점기에는 '텍스트 중심'으로, 광복 후에는 '인물 중심'으로 검열이 전개되었다. 일제강점기 이념의 문제를 다룬 검열사유는 '치안방해'였는데, 사회주의가 검열대상이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사회주의 텍스트(가사내용)에 대한 검열이었고, 텍스트(음반과 노래책)의 판매 금지나 압수 위주의 조치였다.

이에 비해 광복 후의 노래검열은 인물(작가)에 대한 검열이 우선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즉 작가에 대한 이념 판단이 작가의 텍스트의 금지는 물론 작가의 예술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이었다. 좌익계작가나 월북작가에 대한 조치가 그것이었다. 이는 노래검열의 대상이 일제강점기의 텍스트 중심에서 광복 후 인물 중심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1950년대 전후의 금지곡은 노래검열이 일제강점기 식민지배 도구에서 광복 후 1960년대 사회관리통제의 도구로 전환되는 사이기간에 노래금지사유와 대상 및 방식의 전환과정을 보여준다.

**한글검색어:** 금지곡, 노래검열, 예술의 반공주의, 월북음악가, 월북작가, 해방가요

**영어검색어:** Forbidden Songs, Song Censorship, Anti-Communism in Art, Musician Who Defected to North Korea, Writer Who Defected to North Korea, Liberation Song

## 참고문헌

### 1차 문헌

#### 1. 단행본

- 계정식. 『중등노래교본 초급』. 서울: 교회음악연구회, 1946.
- 군정청 문교부. 『초등노래책 5학년』, 1948.
- 군정청 문교부. 『초등노래책 6학년』, 1948.
- 김승식 편. “문화: 음악.” 『1947년판 조선연감』. 302. 서울: 조선통신사, 1946.
- 나운영. 『어린이노래책1집』. 서울: 광문사, 1946.
- 박영근. “음악계 개관.” 『1947년판 예술연감』. 김용호 편, 39. 서울: 예술신문사, 1947.
- 박용구. 『음악과 현실』. 서울: 민교사, 1949.
- 전국교육음악협회. 『중학음악교본1권』. 서울: 국민음악연구소, 1947.
- 조선국민음악연구회편집부 편. 『해방기념 애국가집』. 서울: 조선국민음악연구회, 1946.
- 중등음악교과서편찬위원회 편. 『임시중등음악교본』. 서울: 국제음악문화사, 1946.

#### 2. 정부문서

- “대통령령 제1000호. 문교부 직제.” 『관보』. 제1274호, 1955년 2월 17일.
- “월북작가의 음악·미술작품 규제 해제계획.” 문화공보부 내부문서, 1988년 10월 27일.

#### 3. 정기간행물

- 김성태. “음악건설의 제언.” 『혁명』. 서울: 혁명동지사, 1946년 창간호.
- 김순남. “악단회고기.” 『백제』. 서울: 백제사, 1947년 제2권 2호.
- 최동식. “검열유감.” 『문교월보』. 서울: 문교부, 1959년 8월호.
- Haimowitz, Ely. “조선을 떠나면서.” 『신세대』. 서울: 신세대사, 1948년 5월호.

#### 4. 일간지

- “4.19의 음지(7) 반공예술인단.” 『동아일보』, 1960년 11월 13일.

- “각 학교도 성대행사.” 『한성일보』, 1946년 7월 28일.
- 계정식. “먼저 일본색 일소.” 『조선일보』, 1946년 2월 18일.
- “곡만으로도 안된다. 문교부 왜색레코드에 견해 표명.” 『조선일보』, 1956년 1월 16일.
- “국가이념에 위반되는 저작물 등을 일체 발금(發禁).” 『조선일보』, 1949년 10월 1일.
- “국민가요 등 당선자 공보처서 어제 시상.” 『조선일보』, 1949년 7월 26일.
- “국민가요 등 당선자에 수상.” 『경향신문』, 1949년 7월 27일.
- “국민반 강화, 국회서 문제화시.” 『경향신문』, 1957년 4월 5일.
- “국민반 즉시 해체요구.” 『동아일보』, 1957년 4월 24일.
- “국민운동강화.” 『경향신문』, 1949년 8월 26일.
- “국민의 가요 공보처서 제정.” 『동아일보』, 1949년 12월 4일.
- “귀의(歸依) 문화인 집필금지 해제. 사전검열제를 이(李) 공보처장 언명.” 『조선일보』, 1950년 2월 5일.
- “레코드 여수야화 발매를 금지.” 『한성일보』, 1949년 9월 3일.
- “마음껏 불으자 해방기념가.” 『동광신문』, 1946년 7월 31일.
- “무대예술인 간담회.” 『조선일보』, 1949년 4월 17일.
- “문화10년 음악.” 『경향신문』, 1955년 8월 12일.
- “문화인 자수강조. 미자수자 서적은 발금.” 『자유신문』, 1949년 11월 6일.
- “민전 산하 연예인 출연을 불허.” 『동아일보』, 1949년 4월 12일.
- “민전(民戰) 산하 예술인에 탈당없인 활동금지.” 『경향신문』, 1949년 4월 10일.
- “민족정신 양양하자. 계몽선전대 장행회(壯行會) 성왕.” 『동아일보』, 1949년 10월 23일.
- “민주적 음악을 수립. 대한연주가협회 결성.” 『동아일보』, 1946년 3월 13일.
- “반공예술인단 19일에 창립총회.” 『경향신문』, 1959년 3월 14일.
- “반공예술인대회.” 『경향신문』, 1959년 3월 19일.
- “불온레코드 「여수야화」 판금(販禁).” 『경향신문』, 1949년 9월 3일.
- “불온음반 취체. 첫 메스에 <울어라은방울> 발금.” 『산업신문』, 1950년 1월 5일.
- “불온저서판금(不穩著書販禁) 불인내(不日內) 압수착수.” 『동아일보』, 1949년 11월 7일.
- “사상전을 강화. 관계부처합의.” 『동아일보』, 1953년 12월 7일.
- “서적 단속을 강화. 월북작가 저서는 판금 처분.” 『조선일보』, 1951년 10월 7일.

- “시인 정지용씨도 가맹(加盟) 전향지변(轉向之辯) 심경의 변화.” 『동아일보』, 1949년 11월 5일.
- “안호상(安浩相) 문교부장관. 검인정교과서에서 좌익작가 작품 삭제 등 문교행정에 대하여 기자와 문답.” 『한성일보』, 1949년 10월 5일.
- “애국가요를 보급. 저속·애상한 유행가 일소.” 『자유신문』, 1949년 12월 2일.
- “월남예술인예술대회.” 『경향신문』, 1952년 6월 21일.
- “월북가요작가의 가장공개금지령.” 『마산일보』, 1952년 10월 21일.
- “월북인 작품 등 단속. 내무 공보 등 5개 관계관 회합.” 『자유신문』, 1953년 12월 8일.
- “월북작가 저서 발금.” 『자유신문』, 1951년 10월 5일.
- “월북작가작품 등 교과서 사용않도록.” 『경향신문』, 1957년 3월 2일.
- “월북작가작품 출판판매금지 문교부서 지시.” 『동아일보』, 1957년 3월 3일.
- “월북작곡가 가곡 등 금지. 이 공보처장 담(談).” 『경향신문』, 1952년 10월 30일.
- “월북한 작가의 작품. 진주라 천리길 등 가곡 일체 금지.” 『동아일보』, 1952년 10월 30일.
- “연극각본을 검열, 민족사상혼란방지?” 『동아신문』, 1949년 3월 11일.
- “음반을 회수. 해방된 역마차.” 『동광신문』, 1949년 10월 20일.
- “음악의 인민적 기초건립. 음동(音同)서 해방가요발표회.” 『현대일보』, 1946년 5월 3일.
- “이철원 공보처장. 저속한 유행가보다 애국가요를 부르라는 담화를 발표.” 『한성일보』, 1949년 12월 2일.
- “자유예련(藝聯) 결성.” 『경향신문』, 1952년 7월 2일.
- “전향 문필가 기고를 해금. 이(李) 공보처장 담(談).” 『경향신문』, 1950년 2월 5일.
- “전향작가원고 앞으로 심사않는다. 이(李) 공보처장 담(談).” 『동아일보』, 1950년 4월 8일.
- “지방계몽선전대 23일 현재 향발.” 『동아일보』, 1949년 10월 22일.
- “지방민심을 수습. 각도에 계몽선전대 파견.” 『동아일보』, 1949년 10월 12일.
- “한국반공예술인단 간부를 선출.” 『경향신문』, 1959년 3월 21일.
- “한국반공예술인단 발기취지문.” 『경향신문』, 1959년 3월 10일.
- “한국반공예술인단 선언문.” 『경향신문』, 1959년 3월 19일.
- “한국반공예술인단의 창립에 즈음하여.” 『경향신문』, 1959년 3월 22일.

“해방기념가 제정. 대한연주가협회에서.” 『동아일보』, 1946년 7월 27일.

“해방기념가.” 『자유신문』, 1946년 8월 9일.

“〈해방된 역마차〉. 음반을 압수.” 『충청매일』, 1949년 10월 2일.

“〈해방된 역마차〉. 음반을 압수한다.” 『영남일보』, 1949년 10월 1일.

## 2차 문헌

### 1. 단행본

김정섭. 『한국대중문화예술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7.

문옥배. 『한국공연예술통제사』. 서울: 예술, 2013.

박찬호. 『한국가요사2』. 서울: 미지북스, 2009.

장유정, 주경환. 『조명암의 대중가요』. 서울: 소명출판, 2013.

### 2. 논문

구수영. “해방가요의 분석과 역사적 의미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노동은. “일제하 음악사회의 성격.” 『낭만음악』 1/4 (1989): 4-91.

노동은. “일제하 음악인들의 친일논리와 단체.” 『음악과 민족』 25 (2003): 51-131.

문옥배. “해방 이후 정부의 음악통제 연구.” 『음악논단』 22 (2008): 25-64.

박정선. “해방가요의 이념과 형식.” 『어문학』 99 (2008): 199-230.

서영희. “일제강점기 박영호의 대중가요 가사작품 연구.” 『민족문화논총』 33 (2006): 227-251.

주혜진. “해방가요와 해방가요운동의 발생과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국문초록

## 1950년 전후 금지곡의 사회사적 연구

문 옥 배

본 글은 1950년대 전후 금지곡이 행정 처분된 사회사적 배경은 무엇이며, 그 배경에 의해 어떤 음악가(작가)와 그들의 노래가 금지 조치되었는지 살펴본 것이다. 내용으로는 ‘노래검열의 배경’, ‘반공주의에 의한 노래검열’, ‘시국에 의한 노래검열’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 연구 결과로는 첫째 1950년대 금지곡의 사회사적 배경은 냉전체제에 의한 반공주의와 시국이었고, 둘째 반공주의에 의해 월북작곡가와 작가의 작품들이 전면 금지곡이 되었으며, 셋째 정치성을 띤 시국을 사유로 사회비판적인 가요가 금지되었고, 넷째 사회의 반공주의와 시국에 의해 노래금지 사유는 풍속보다 치안에 치중되었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Abstract

## Sociohistorical Study of Prohibited Songs around the Time of 1950

Moon, Ok-Bae

The study examines the sociohistorical background of the administrative measures taken against prohibited songs in the years around the 1950s, and investigates which musicians (artists) and their songs were subjected to such prohibition due to this background. The content is divided into discussions on the background of song censorship, censorship influenced by anti-communism, and censorship driven by the political climate.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sociohistorical background of prohibited songs in the 1950s was influenced by anti-communism due to the Cold War era and the political climate. Secondly, under anti-communism, the works of pro-North Korean composers and writers were completely banned as prohibited songs. Thirdly, politically critical songs were prohibited due to the politically charged atmosphere of the time. Fourthly, it was inferred that the reasons for song censorship, driven by societal anti-communism and the political climate, were more focused on public safety than moral concerns.

[논문투고일: 2024. 02. 28]

[논문심사일: 2024. 03. 18]

[게재확정일: 2024. 03. 22]